

2021 02 Vol. 368  
<http://cafe.daum.net/ocdskr>

#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 기쁨



나는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살면서 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다시 보고 싶은가요?”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굳이 가슴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고 눈물 나는 것들을 선택해서

기억의 화면으로 자꾸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 년을 혹은 한 달을 혹은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자주 보고 싶은 것, 기쁜 추억의 명장면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자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행복이고 힐링(healing치유)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장면을, 마음과 기억에서 꺼내어 볼 때마다 과거의 삶들이 평화로워집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은 잊증나지 않으니 자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 CONTENTS

-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기쁨
- 03 차례
- 04 강의/ 김영문(브루노) 신부  
성경에 나타난 협상과 조정(2)
- 09 강의/ 이인섭(필립보네리) 신부  
순명과 참사회의 운영(2)
- 12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49)
- 15 웅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마음기도(능동적 관상)
- 16 영성/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나는 하느님 빛기를 원합니다(16)
- 21 영혼의 성 연구/ 서한규(시몬) 옮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2)
- 25 어두운 밤 연구/ 서한규(시몬) 옮김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18)
- 28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김석영(요셉) 수사  
내 남은 나의 것
- 30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박지현  
(요셉피나)  
미안하고 불편하지만, “아니오!”
- 32 선교/ 양상룡(도미니코) 신부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 34 묵상/ 윤원조(리드비나)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
- 36 공동체 소개/ 고성 가르멜산 성모의 공동체  
여기는 고성입니다
- 39 마음의 샘
- 40 회원의 글/ 김순상(베로니카)  
행복한 사랑
- 42 회원의 글/ 권금미(데레사)  
가르멜 재속회에 봉헌된 종신서약문
- 44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23)  
2021년 4월 영적나눔
- 46 추모글/ 박계용(도미니카)  
화양연화
- 49 가르멜 영성 문화 센터
- 50 비둘기
- 51 성소자를 찾습니다
- 52 그림단상

### 표지그림

봉헌(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68호 (2021 2. 1) 의장: 공원순 부활의 효임골롬바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한국 재속 가르멜회 <http://cafe.daum.net/ocdskr> / 가르멜 수도회 <http://carmel.kr>

관구 재속 가르멜회 계좌(우리은행) :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 강의 \*

## 성경에 나타난 협상과 조정(2)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가르멜 수도원

셋째, 이런 사람이 분쟁과 갈등에서 협상하고 조정할 수 있다. 분쟁과 갈등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상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분쟁에서 상대방을 피하고 홀로 하느님을 찾고 기도한다. 기도 안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화해를 위한 제스처,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에사우와 야곱의 일화(창세 27,1-29)를 본다. 이사악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는 맏아들 에사우에게 이제 늙었고 죽게 되어서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몰래 들은 어머니 레베카는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배고픈 에사우를 이용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늙은 이사악을 속인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 간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는다(창세 27,28-29).

“하느님께서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 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못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못 겨레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네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네 어머니의 자식들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동생 야곱의 장자권은 조상들의 재산 상속인이 되며, 하느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계승자가 되는 권리다. 그러나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 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아우 야곱을 죽여 버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창세 27,41)

에사우는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다닌다. “야곱은 형에게 살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멀리 타향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다.(창세 27,41-45) 야곱은 자신이 책략을 꾸미고 형의 축복과 권리를 횡령하였지만 이 상황에서 축복해주시고 약속해주신 하느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 형의 저주를 받고 야곱은 아주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다. 축복받았지만, 하느님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갈라진 분쟁에서 다시 형제애가 가능한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복수심, 적개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를 야곱의 이야기가 지혜, 가르침을 알려준다.

야곱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창세 28,10-22) 하느님 현존의 꿈을 꾀다. 꿈의 내용은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다.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린다. 하느님이 나타나서 그의 삶의 비밀을, 그의 미래를 밝힌다. 하느님이 축복 받은 약속을 보증을 해주시고, 조상들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다. 하느님 현존을 체험한 야곱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한다.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면서 그곳을 떠난다.

이제는 과거의 부정하고 속였던, 이기적인 탐욕의 포로가 아니었다. 이제는 또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나 책략의 포로도 아니었다. 이제 하느님을 만나서 모두 떠나보낸다.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야곱은 이렇게 중요

한 순간에 하느님을 만난다. 또 하느님께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야곱은 꿈에서 주님의 현존과 말씀을 듣고 기념 기둥을 세우고 하느님께 서원을 하며 기도한다.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또한 하느님이 해 주시는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의 봉헌을 약속하며 기도한다.

야곱은 형 에사우를 생각할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로 형과의 분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야곱은 자주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향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어느 날, 하느님의 이끄심과 가르침이 오게 된다. 그래서 형 에사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즉 형을 찾아 화해하고자 한다.

기도에서 만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용서를 빌고 화해를 위해 야곱은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한다. 야곱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야곱은 화해하고 용서를 청하기 앞서 두려움 속에서 또 기도한다.(창세 32,9-12 참조)

기도를 마치고 야곱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에사우에게 간다.

먼저 야곱은 일행과 선물들을 앞서 보내고 또 들판에 홀로 남았는데 하느님이 나타나시어 하느님과 씨름을 하게 된다.(창세 32, 23-30 참조) 야곱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씨름을 한다. 야곱은 하느님을 알기 위하여,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보기 위하여 싸워야 했다. 이런 기도가 분쟁의 상대자를 만나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의 씨름이다. 특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와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분쟁

당사자가 기도 중에 머릿속에서 나타난다. 정말 분쟁 당사자와 분심하고 하느님을 향하기 위해 씨름을 한다. 하느님과 다투듯이 매달린다. 우리는 이렇게 분쟁 중에서도 이렇게 하느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 먼저 하느님과 자신의 일을, 자신의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느님과 함께 상대방과 평화로운 방식으로 씨름하며, 또 협상을 할 수 있다.

야곱은 씨름 같은 기도 후에 더욱 겸손해졌다. 먼저 자신을 한껏 낮춘 아우의 겸허한 자세는 형 에사우의 적개심을 가라앉힌다. 참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허해지면,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화해를 가능케 하는 자세가 나온다.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화해가 된다.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장서 가면서,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다.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창세 33,3-4)

에사우는 용서를 해주는 것에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에사우는 겸손한 자세로, 암묵적으로 용서를 청하는 아우의 태도를 본 뒤 동생을 죽이려는 복수심에서 자유로워진다. 야곱은 화해가 이루어진 후, 재산과 선물을, 즉 자신의 것들을 내놓는다.

분쟁과 갈등에서 먼저 자신이 낮은 자세를 취하면 상대의 마음이 풀어지고 이해하게 된다. 사람이 서로 평화를 찾고 서로 이해를 하면, 마음을 열어 관대해진다. 더는 상대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가진 것을 나누고 선물까지 내놓게 된다. 분쟁과 미움에서 화해는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선물이며 기쁨이다. 사실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사도 20,35)라고 이르셨다.

넷째, 이런 사람이 분쟁과 갈등에서 협상하고 조정할 수 있다.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려는 사람이다. 상대가 대화와 소통을 위해 다가오는 태도나 제스처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멸시한다. 말로 단죄하고 타인을 왕따 시키고 제거한다. 말에 사랑이 있으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존경심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포용한다는 말을 하면 좋은 일이다. 부드러움도 말로 드러내고, 용서도 말로 한다. 감사도 말로 하고, 사랑도 말로 한다.

하느님은 사람과 통교하기 위해서 말을 선택하셨고 자신을 낮추셨다. 하느님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인 나자렛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거처하시는 하느님의 '말씀' 이었다.

역시 창세기에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다(창세 37,3-11 참조). 요셉과 형제들의 일화는 말이 서로 좋은 관계를 건설하기도 하고, 좋지 않게 파괴하기도 하며 또 말이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어느 아들들보다 '늘그막에 얻은 아들, 요셉을' (창세 37,3) 더 사랑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자, 의도치 않게 형제들은 요셉에게 적개심을 갖게 된다.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어린 동생인 요셉의 꿈에 형들이 나타났는데, 미래에 형들이 동생보다 못하고, 동생보다 더 낮아진다고 말한 것이다. 그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창세 37,4)

형들은 동생이 미워서 정답게 말할 수가 없고,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없다. 마음 안에 적개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형제간인데 친밀하게 대화가 안 된다. 적대감이나 분쟁,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 함께 하지만,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말이 정답게 나오지 않는다. 서로 대화가 줄어들면서 할 말이 중단된다. 그리고 서로 단절이 시작된다. 이 단절은 오래가고 길어진다.

모든 가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형제들과 요셉 안에서 일어난 미움과 증오,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듯이, 우리 가족들, 형제들 간에 미움과 증오, 대화의 단절이 있다. 이런 일은 많은 단체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 책임자들, 대표들 사이에서도 미움과 증오, 대화의 단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오면,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대화가 없으면 자신의 삶에서, 아니 우리 단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더 불행한 상황은 그 사람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화를 거절하는 데에서 더 큰 분열이 일어난다. 상대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확신하고, 토론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확신하는 논리와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감히게 된다. 상대방은 대면하기도 싫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얼굴을 보기도 싫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멀리 타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잘 있는지 가보라고 한다. 야곱은 아마 '자녀들이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기회이다. 이렇게 먼저 찾아가서, 비록 작은 행동이라도 보여줄 때, 서로 미워하고 거리가 멀어진 형제들 사이

에 관계가 바뀌게 된다.’ 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요셉이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형들과 가축들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지만 위기를 맞는다.(창세 37,12-20 참조) 형들은 너무 먼 지역까지 가서 요셉은 묻고 물어서 드디어 아주 먼 곳까지 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꿈쟁이” 라며, 여전히 부정과 거부의 감정을 드러낸다. 형들은 동생 요셉이 얼마나 힘들게 찾아왔고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를 표현하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형들은 자신들을 찾아 이렇게 먼 곳까지 와준 동생에게, 여전히 정다운 대화를 할 마음이 없다. 요셉과 대화할 마음도 없고, 그가 다가와서 만나기 전에 벌써 마음에서 이미 판단하고 결정하였다. 형제들은 다가오는 요셉을 제거하고 싶어 하며,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다가오는 상대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세는 결코 평화를 주지 못한다. 미움과 거부하는 감정들은 옳지 않은 것이며,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미워하고 거부할 때 그 자신이 감정의 골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고 불행하게 된다.

상대방과 나 자신, 이 둘 중 하나가 다가가는데, 어느 한쪽이 계속 거부와 미운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 결별할 수밖에 없는 불행이 된다. 내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는 장벽, 내가 여기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느님이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느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게 기도하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롭게 한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온다.

다섯째, 이런 사람이 분쟁과 갈등에서 협상하고 조정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들

아예 배제하거나 없애버리지 않는 것이다. 불평과 적대감이 있지만 꾸준히 나 자신 나름대로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서로 일에서, 삶에서 공생 공존해야 한다면, 상대에게 조금씩이라도 선을 베풀어서 함께 해야 한다. 내가 먼저 선하게 변해야 상대도 선하게 변한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있다. (사무엘 1서 18장 참조)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상호 존경으로 시작한다. 곧 다윗은 사울을 섬기며, 사울은 다윗의 힘과 책략 때문에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성공을 기원하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에 돌아왔는데, 여인들은 노래를 하였다. 즉 사울은 수천을 물리쳤지만, 다윗은 수만을 물리쳤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다(1사무 18,8-10).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심을 갖지만, 다윗 없이는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사울이었다. 그러나 사울에게 들어온 악령이 너무 강력해서 복수와 질투심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다윗은 도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도주하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닌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울과 다윗이 같은 동굴에 있게 된다. 다윗이 이미 깊은 동굴 속 안에 있었는데, 사울이 동굴 입구에 들어온 것이다. 다윗 일행은 사울인 것을 알았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야말로 급습해서 없애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

윗은 몰래 사울의 겹옷자락을 잘랐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축성된 사람이라고 손을 대지 않는다.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지 못하도록 한다.(1사무 24,5-8)

아무 것도 모르는 사울이 동굴에서 나오고, 다윗도 뒤를 따라 동굴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주님이 자신 손에 넘겨주었고, 죽여 없애라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한다. 목숨을 살려준 것은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 이기 때문이다.(1사무 24,11-14)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나와 적대적인 사람이든, 논쟁해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든, 내가 없애는 것으로 올바른 정의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 다윗은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려준다. 다윗은 상대방을 오히려 관대하게 대하고,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결국 적대적인 사울을 없애 버리지 않음으로써 평화가 이뤄진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정의를 하느님께 신뢰하고 말긴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1사무 24,13) 다윗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고, 폭력을 포기한다. 그래서 적대자를 제거하게 하는 적개심을 버린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없애지 않고 관대하게 대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고친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 주었는지 오늘 보여

준 것이다." (1사무 24,18-19)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투고, 갈라서고 분열되면, 상대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하려고 한다.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고, 기를 못 펴게 하고, 심지어 제거하고, 없애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이다. 분쟁과 갈등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 살려주는 것이다. 악을 행하고, 보복하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인과응보의 논리는 아니다.

지금까지,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쟁과 갈등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분쟁하고 있는 사람의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일하는 스타일, 다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또 많은 의견 대립과 사고방식의 대립, 시각 차이 등이 있지만,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모두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한 형제자매이다. 영적 동반자이다. 같은 자녀, 형제애와 동반자라는 유대와 끈을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다툼과 논쟁도 있지만, 그 이후는 홀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화해를 염두에 두고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대화의 중요성도 알아야 한다. 분쟁 당사자와 올바르게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위해 다가오는 그의 노고와 수고, 제스처를 거부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쟁과 문제가 되는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 나름대로 기도하고 꾸준히 선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

\* 강의 \*

## 순명과 참사회의 운영(2)

이인섭(십자가 성체성혈의 필립보네리) 신부/ 인천 가르멜 수도원

순명을 통해 완성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계의 모범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불순명의 예도 있습니다. 순명의 예를 보기 전에 먼저 불순명의 예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께 불순명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아담의 불순명입니다. 아담은 하느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와와 그 유혹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유혹에 떨어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의심입니다. 아담은 유혹자의 말을 믿고 하느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의심과 불신이 결국은 불순명으로 하느님과 맺고 있던 인격적 관계를 부서뜨렸지요. 하느님과 맺고 있던 인격적 관계가 부서지자 불신의 죄와 죽음이 아담에게 들어 왔습니다. 이런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본다면 순명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복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표징이며 열매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을 통해 신앙의 표징이나 열매가 아니라 죄와 죽음이란 열매를 맺었지요.

이런 아담과 달리 순명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 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느님은 자손을 약속하시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살던 당

시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유목민이 부모와 친족들과 헤어져 고향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건 엄청난 모험이었다고 합니다. 고향과 친족 부모는 단지 혈연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울타리였고, 고향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약탈자나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낯선 땅에 나약한 무방비 상태로 아브라함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자손을 기대하며 고향을 떠나기에 아브라함은 너무 많은 나이였지요. 하지만 이후 하느님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더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십니다.

“네 외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쳐라” 떠나라는 하느님의 말씀과 외아들을 바치라는 하느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느님의 요구이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알 수 없는 하느님의 깊은 뜻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 인간적 이성의 어둠 속을 더듬으며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미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서도 해야 할 것을 행해야 했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명은 하느님이 주신 시련이고 유혹이며, 하느님에게는 창세기 22장 16절의 “네 외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바쳤다” 는 말씀처럼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명이란 시련과 유혹으로 하느님을 온전히 증거 했습니다. (순명이 시련이고 유혹이며 하느님에 대한 증거)

아브라함처럼 순명이 시련이고 유혹이며 하느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더하면 예수님의 순명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순명은 시련, 유혹, 증거이며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까지 순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의하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어릴 때는 양친에게 순명하시고(루카 2,51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커서는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하시며(마태 17,27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건져서 세금을 바치시며') 정상적인 의무를 이행하시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명은 수난할 때 절정에 달했고 비인간적이고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내맡겨 온갖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고"(히브 5,8), 자기의 죽음을 하느님께 제일 값진 제물 즉 순명의 제물로 바치셨다.(히브 10,5-10) 이러한 예수님의 순명을 필리피서 2장 8절에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명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말하는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마음 깊이 하느님께 순종하려고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 라는 결과를 극복하여, 하느님의 뜻을 따름이란 차원에서 인간이 다시 하느님께 순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다시 순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자유에서 구속으로 돌아감이 아니라 죄와 유혹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느

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이 부서뜨린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순명을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느님께 순명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의 회복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순명이 시련이고 유혹이며 증거이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요구되는 순명의 내용이나 상황이 힘들어서 순명을 하기가 힘들 때 순명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으로 다가오고, 또한 내 의지를 꺾고 나를 죽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적인 시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순명할 때 이 순명은 하느님께 내 의지를 맡기는 신앙의 증거가 되고,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은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다양한 얼굴로 다가오는 순명의 덕을 한결같이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덕이 바로 겸손입니다. 순명은 필리피서 2장 8절에서 "그분은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겸손을 전제로 합니다. 순명을 위한 겸손함은 첫째 하느님의 뜻을 찾음에 있어 신중함입니다. 이는 너무 주관적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저런 수단들, 방법들, 기술 등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공동체의 선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느님의 뜻을 찾음에 있어 항구함입니다. 이는 분명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상의 삶 안에서도 꾸준하게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의 뜻을 찾음에 있어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겸손으로 시련이며 유혹이고 증거이며 구원이 될 수 있는 순명의 덕을 실천할 장소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어가는 탁월한 공간이라고 해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순명은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생명력을 얻으며, 개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같은 카리스마 안에서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실제로 공동체의 분열이 있는 곳에 공통적으로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상호 순명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호 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랑이 자리할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에게서 받은 권위의 수행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권위를 위임받은 이들의 인간적 한계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으로서의 내적인 신뢰와 자유를 순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살다보면 직책을 맡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래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순명의 걸림돌로 다가오는 실망스런 인간적인 능력, 인품 등등이 내 불순명의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한 모습에 순명할 수 있음이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는 진정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믿는 신앙의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순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명을 통해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11장 28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행복을 체험하며 그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삶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순명을 통해 체험하고 선포해야 할 행복은 우리가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 효율성, 내가 옳다는 고집 등등에 집착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순명의 행복은 양보와 기다림, 내어줌을 통해 실현됩니다. 우리가 속한 재속회는 돈을 벌거나 권력을 쟁취하거나 뭔가 세속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가치의 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희생해서 조금 늦더라도 혹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사랑, 배려, 양보, 믿음과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다른 가치의 추구를 통해 영적인 행복을 체험하며, 필요하다면 이 행복을 위해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효율성, 내 기준, 고집 등등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성생활 안에서 내 고집대로 빨리 가야 50보 빠르고 늦게 가야 50보 느린데, 그 50보의 차이가 우리에게 심각할 정도의 불편이나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한 만큼 비워진 50보가 주는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내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고집 피운 그 길이 더 빠르다는 보장도 없지요.

영성생활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면 아무리 답답하게 잘못하는 듯 싶어도 큰 문제없이 다 잘 됩니다. 그러나 혼자 세상 구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살아가는 신앙의 삶 안에서는 쓸데없는 독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명은 내 똥고집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20쪽으로)

\* 수도회 역사 \*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49)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 13.2.2. 아시아의 가르멜 수녀원

아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에는 가톨릭 신자가 소수에 불과했으며, 맨발 가르멜이 진출하게 된 것은 남자 가르멜 회원들을 통해 17세기 초부터 선교가 이루어지면서였다. 이들을 통해 페르시아(현 이란), 레바논, 팔레스티나(현 이스라엘), 인도 등에 가르멜의 영성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르멜 수녀원이 창립되어 갔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유럽에서 더 멀리 떨어진 극동 지방은 상대적으로 늦게야 전파되었다.

#### 1) 한국 가르멜 수녀원



서울 가르멜 수녀원

한국 가르멜은 남자 가르멜보다 여자 가르멜이 먼저 진출했다. 한국에 가르멜이 진출하게 된 것은 구한말부터 한국 교회 선교를 위해 투신했던 파리 외방 전교회 신부 가운데 임 가밀로 신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에서

활동하며 가르멜 수녀원이 생기기를 오랜 세월 염원하는 가운데 기도했다. 그는 충북 감곡(현 장호원) 성당에서 사목을 하던 와중에, 프랑스의 리지외 가르멜에 가르멜 수녀원 설립을 위해 수녀들을 한국에 파견하도록 요청했다. 이 소식을 접한 프랑스의 에르(Aire sur A'dour) 가르멜이 이러한 염원에 응답하여 1939년과 1940년에 프랑스 에르 가르멜에서 4명, 벨기에 비르통(Virton) 가르멜에서 1명의 수녀가 한국에 파견되었다. 당시 서울 교구장이던 원 라리보 주교는 한국의 첫 가르멜이 수도인 서울에서 시작되기를 바랐다. 이에 따라 창립 멤버들은 서울의 혜화동 대신학교 안의 부지에 작고 소박한 수도원을 신축했으며, 1940년 4월 1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

일(성모 영보 이동축일)에 서울 가르멜 수녀원이 설립되었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라 아직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난한 수도 생활이었지만, 5명의 창립 멤버들은 열성을 다해 가르멜의 기틀을 마련하고, 많은 지원자들을 받아들여 양성했다. 서울 가르멜은 차츰 안정되었고, 초창기 수녀들은 봉쇄의 고독 안에서 세계 제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 등 격동의 시기에 세상과 교회를 위해, 특별히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와 관상 생활에 투신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5명의 설립자 수녀들은 국외로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으나, 한국 수녀들과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

서울에 남기로 하고 마지막 비행기를 포기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설립자 수녀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산군에 의해 피랍되었다. 이들은 강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수도자로서 기도 생활의 의무를 다했으며, 주변의 외국인 포로들을 따뜻한 애덕으로 도와주었다. 여름옷과 허름한 신발을 걸치고 변변치 못한 음식도 겨우 주어지는 온갖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수녀들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 국경지대 중강진으로 이어진 악명 높은 ‘죽음의 행진’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초대 원장인 마리 메히틸드 수녀와 2대 원장인 테레즈 수녀는 순교해서 북한에 묻히고 말았다.

한편, 이들을 제외한 서울 가르멜 수녀들은 부산으로 피난하여 수도생활을 계속했으며, 휴전이 되자 서울로 납북되었던 5명의 수녀 가운데 생존한 3명의 수녀들은 포로 교환을 통해 본국인 프랑스로 송환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명의 수녀가 서울로 귀환, 서울 가르멜 수녀들과 20년을 함께 살며 수도자로서 귀감이 되어주다가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1963년, 서울 가르멜 수녀원은 기존의 대신학교 자리에서 현재 수녀원이 위치한 수유동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많은 관상 성소자들은 서울 가르멜의 문을 두드렸고, 이렇게 양성된 많은 가르멜 수녀들을 통해 한국 교회 전역에 수녀원이 창립되었다. 서울 가르멜로부터 부산 가르멜(현 밀양 가르멜, 1955), 대전 가르멜(1975), 천진암 가르멜(1980), 프놈펜 가르멜(2005), 동두천 가르멜(2020) 이렇게 5개의 가르멜이 탄생했다. 또한, 1979년 마산교구의 고(故) 장병화 주교의 초대로 부산 가르멜 수녀들이 분가해서 1986년 고성 가르멜이 탄생했다. 그리고 1988년 대전



밀양 가르멜 수녀원

가르멜로부터 충주 가르멜이 탄생했다. 반면, 대구 대교구의 서정길 대주교의 주도로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세카우 교구의 마리아첼 가르멜(Mariazell)이 대구 대교구에 진출해서 1962년 9월 14일 대구 가르멜이 창립되었다. 그리고 대구 가르멜로부터 분가된 상주 가르멜이 1996년 5월 23일 창립되었다.

현재 한국 가르멜에는 9개의 수녀원과 프놈펜 가르멜까지 10개 수녀원이 합쳐서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모두 「91년 회헌」을 따라 생활한다.

## 2) 필리핀 가르멜 수녀원

필리핀 전역에 가르멜 수녀원의 씨앗을 뿌리게 될 첫 번째 맨발 가르멜 수녀원이 창립된 것은 하루 일로일로(Jaro-Iloilo)의 교구장인 제임스 맥클로스케이(James P. MacCloskey) 대주교의 공이 컸다. 제임스



일로일로 가르멜

대주교는 1923년 옛 인도네시아(현 베트남)에 있는 아남(Anám)의 당시 수도인 우에(Hué)에 가르멜 수녀원의 창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우에 가르멜은 하노이 가르멜(Hanoi)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하노이 가르멜은 사이공 가르멜(Saigón)에 의해 창립되었다. 하노이 가르멜과 사이공 가르멜은 소화 데레사의 삶에서 익히 상기되고 있던 공동체들이다. 사이공 가르멜은 리지외 가르멜에 의해 창립되었기 때문이다. 옛 인도네시아 지역에 자리한 아남 가르멜 수녀원은 이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다. 제임스 대주교의 요청에 따라, 우에 가르멜은 1923년 10월 22일 창립 멤버가 될 4명의 수녀를 파견했으며, 이들은 그해 11월 3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도착하게 된다. 이어서 11월 8일에는 창립지인 일로일로(Iloilo)에 도착했으며, 다음 날인 11월 9일 미사를 봉헌하며 공식적으로 일로일로 가르멜을 창립했다. 그 후 이 공동체에는 많은 성소자가 몰려들어 훗날 새로운 창립을 위한 꿈을 키워갔다. 마침내, 이 공동체는 창립된 지 3년 후인 1926년 마닐라(Manila)의 케손(Quezón) 지역에 수녀원을 창립하게 된다.

그 후, 새로운 수녀원 창립이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필리핀 역시 2차 대전의 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필리핀 전역에는 1992년까지 다음과 같은 많은 가르멜 수녀원이 창립되기 시작했다: 바콜로드 가르멜(Bacolod, 1946), 리파 가르멜(Lipa, 1946), 다바오 가르멜(Davao, 1947), 세부 가르멜(Cebu, 1949), 라오아그 가르멜(Laoag, 1949), 나가시티 가르멜(Naga City, 1949), 앙헬레스 가르멜(Angeles, 1956), 루세나 가르멜(Lucena, 1957), 홀로 가르멜(Jolo, 1961), 오자미스 가르멜(Ozamiz, 1962),

카가얀데오로 가르멜(Cagayán de Oro, 1967), 산파블로시티 가르멜(San Pablo-City, 1973), 산페르난도 가르멜(San Fernando de la Unión, 1974), 수빅 가르멜(Subic, 1980), 인판타 가르멜(Infanta, 1981), 마라위-바기오 가르멜(Marawi-Baguio, 1983), 앙헬레스-바기오 가르멜(Angeles-Baguio, 1983), 마티 가르멜(Mati, 1987), 말라이발라이 가르멜(Malaybalay, 1989). 이 가운데 1957년에 창립된 루세나 가르멜의 경우는 좀 달랐다. 이는 중국의 상하이 가르멜 수녀들에 의해 창립되었기 때문이다. 상하이 가르멜 수녀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추방된 후 필리핀으로 이주했으며, 이들이 1957년에 루세나에 공동체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1967년 필리핀 내의 모든 가르멜 수녀원은 두 개의 협회를 구성했다. 이어서 1980년에는 두 협회가 합쳐서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했다. 현재 필리핀에는 21개의 가르멜 수녀원이 있으며, 모두 「91년 회헌」을 따른다. 1947년에 가르멜 수사들이 진출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필리핀의 가르멜 수녀들을 동반하며 그들의 양성과 영성 지도에 전념하며 성녀 데레사의 카리스마를 연구하고 이를 필리핀 교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마닐라 가르멜

\* 옹달샘 \*

## 마음기도 (능동적 관상)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가르멜 수도원

기도의 스승이신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권하시는 기도는 능동적 관상기도인 마음기도(oración mental)(자 8,5)입니다. 수동적 관상(passive contemplation)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만큼 거저 부여하시는(infused) 초자연적 관상입니다. 이런 초자연적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혹시 하느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면 받을 준비나 잘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겸손치 못한 것이며,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능동적 관상(active contemplation)인 마음기도는 마음을 안으로 거둬들이는 노력만 하면(물론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지만) 누구나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의 '우정의 교환'(tratar de amistad)이므로 묵상(meditation, meditación)과는 다릅니다. 묵상은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의 전 단계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방송의 경우 '실시간 생방송'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도는 지금 여기서, 즉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만남은 육안(肉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는' 만남인 것입니다. 이 마음기도는 묵주기도를 가지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는, 당신께서도 한동안 깜깜한 때가 있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즉, 당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쯤은 그전에도 잘 아셨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혼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는 미처 깨닫지 못하신 때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완덕 28, 1-5 참조)

위의 사실을 깨달으신 다음에는 주님이 '살아있는 책' 이시어서 어느 때고 만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녀께서는 하루 50번씩 아래의 현존 수업 기도문을 주님의 현존 앞에서 읊으셨다 합니다. (알폰소 리그리오 성인의 「그리스도의 참된 정배」에서)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만유 위에 흠송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지복(至福) 안에서 저는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저는 원합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 주소서,  
그대로 하리이다.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주소서.” \*

\* 영성의 향기 \*

## 나는 하느님 빛기를 원합니다 (16)

마리 에우젠 신부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 제5장: 침묵

#### B. 침묵의 형태

##### I. 언어의 침묵 (계속)

그러나 잡담을 신분의 의무와 절도 있는 애덕에 의해 부과되고 연장된 대화로 부르지는 말아야 한다. 예컨대 성 뱅상 페레르,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처럼 권위 있는 여러 관상가들은 세상이나 많은 작품을 낸 저술가들과 접촉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이렇듯 필수적이고 이타주의적 차원인 외적으로 드러내는 작업과 관련해서, 영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의지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을 발견하며, 자기 영혼의 심연 속으로 되돌아가 거기서 그가 돌아오는 것을 환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깨어 계신 하느님의 영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잡담의 위험들은 영적인 만남들, 그리고 우리의 내밀한 삶에서 하느님과 더 붙어 나누는 관계들만으로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물론, 자신의 성향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종종 의무이다. 흔히 그것은 자신의 성향과 받은 은총을 영적 지도의 안내에 따르게 하고 거기서 빛과 도움을 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것들을 노트에 털어놓는 것은 [사안들] 명확히 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종종 거기서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해주며 어두운 시간에 그것들을 다시 찾아보게 해준다. 가르멜 수도회의

엄한 규칙은 이사야의 자취를 따라 이런 유익과 필요를 부정하지 않고 선포한다: “침묵과 희망 속에 여러분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이사 30,15, 불가타 성경). 손상되지 않고 순수한 영혼의 활력을 침묵 속에서 보존하며 절망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 속에서 하느님 안에서 빛과 도움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을 향한다. 사실, 너무 긴 영적 신뢰는 자신이 받은 빛과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로 인해 나약하게 한다. 오랫동안 말함으로써 영혼의 활력은 흩어지고 공허해진다. 영혼은, 열렬한 영성체의 불타오르는 느낌을 하느님께 과장되게 드러냄으로써, 행동하는 데 필요한 힘을 잃어버린다. 하느님 안에서 끌어올린 모든 활력은 이처럼 맛깔스러운 말의 파도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또한, 글로 작성된 보고서들(개인적인 사용이든 지도자를 위해서든) 역시 신중하게 인도되어야 한다. 이는 그러한 보고서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작성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과 그 결과로 [상황들]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은 종종 유익하기보다 더 해롭지 않을까? 이것들은 자신으로 굽어들게 하고, 이로 인해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 멈추게 한다. 또한, 이것들은 교만과 영적 탐식에 자양분을 제공해 준다. 초보자들은 영적 탐식으로부터 거의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보고서들이 특히 영혼으로 하여금 미광(微光)과 망각 가운데 하느님을 향해 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만 드러내고 만족스러운 채 안주하게 만드는 아첨하는 거울들은 아닌지,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들을 뒷전에 둔 채 잘 사용하지 못했는지 하는 점을 검토하는 것은 각자에게 속한다.

예배는 정의의 침묵이다(*Cultus justitiae silentium est*): 침묵은 거룩함의 열매인 동시에 요청이기도 하다. 이처럼 성녀 데레사도 사도직에 대한 갈망을 경주하는 시기의 초보자들에게 많이 경고했다.<sup>1)</sup> 그들은 소진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기 위해, 신적인 샘물에서 습성적으로 일치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신의 힘을 쇠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엘리사벳 레죄(Elisabeth Leseur)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영적인 잡담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의 이 큰 고요를 보존하고 싶습니다. (...) 오직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익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만이 자기 증여입니다. 깊은 구석에, 마치 영혼이 자신의 보물을 보존하듯이,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을 주겠다는 지향과 함께, 나머지를 보존합니다”<sup>2)</sup>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장상들의 명령을 통해 자신들의 넘치는 사랑의 충만함과 함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가운데 스스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던 그 순간, 자기 영혼의 모든 보물을 불멸하는 작품들에 맡겼다.

침묵이라는 덕의 수련은 수도자들의 다양한 규칙이 각 수도회에 적합하게 정확한 방식을 확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했다. 가르멜은 끝기도에서 그다음 날 첫 번째 기도까지 자신의 은수적 근원인 ‘위대한 침묵’을 보존했다. 그럼으로써 수도원이 깊은 기도를 하는 데 가장 유리한 시간인 밤에 사막이 되게 해주었다. 낮 동안에는 모든 나태한 말을 금하는 상대적 침묵이 준수되었다.

그러나 불안한 염려가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침묵이 경감되어야 할 필요도 있

다. 이 평안함 또는 휴식은 침묵의 수련을 구성하는 일부이기도 하다. 성녀 데레사에 따르면,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두루엘로(Duruelo)에서 맨발 가르멜 수사들의 첫 번째 수도원을 창립하기 전에, 성녀가 청년 십자가의 성 요한을 바야돌리드 수녀원 창립에 데려간 것은, 그에게 영적 지식을 전해주거나 그의 덕을 시험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녀는 이미 그가 영웅적인 덕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그에게 맨발 가르멜의 삶의 스타일, 특히 공동휴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데레사적인 공동휴식들! 우리는 거기서 이따금 성녀가 캐스터네츠나 탬버린으로 자신의 딸 수녀들로 구성된 유쾌한 합창대를 동반하곤 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 또는 축제의 날에 휴식하는 대신 기도하는 걸 선호했던, 부적절한 공동휴식 신심을 강하게 거부했던 성녀의 모습도 보게 된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이사벨(Isabel de Jesús)이라는 젊은 수련 수녀가 다음의 시구를 노래하던 1571년의 어느 날, 탈혼 상태에서 죽지 못해 죽어가고 있던 성녀도 보게 된다.

제 눈이 당신을 뵈고자, 착하고 감미로운 예수여,  
제 눈이 당신을 뵈고, 이제 저는 죽어 갑니다.  
(*Veante mis ojos, dulce Jesús bueno,  
veante mis ojos, muerame yo luego*).<sup>3)</sup>

3) “예수의 이사벨 수녀는 노래를 잘 불렀으며, 어느 날 성녀 데레사는 공동휴식 때 이 수녀가 그 시절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연애 시를 개작해서 만든 노래를 부르는 걸 듣게 된다. 본문에 인용된 것은 바로 이 노래이다. 이 애절한 노래를 들은 성녀 데레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주체할 길이 없어 어느새 탈혼을 했다고 한다. 함께 있던 제자 수녀들은 놀라서 바로 성녀를 수방으로 모셨고, 얼마 후 탈혼에서 깨어난 성녀는 그분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다음의 시에 적어 담아 두었다: 「사노라 내 안에 아니 살며」(*Vivo sin vivir en mi*). 이 시의 후렴구는 다음과 같다: ‘사노라 내 안에 아니 살며 높이곰 살기가 원이로다. 아니 죽어져 죽겠노라. 사노라 내 안에 아니 살며(*Vivo sin vivir en mi, y tan alta vida espero, que muero porque no muero, vivo sin vivir en mi*)’”(윤주현 지음, 가르멜 영성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르멜 총서 13번, 기쁜소식 출판사, 2014)

1) 참조. 자 13, 8-10; 19, 13-14.

2) 참조. *Journal et Pensée de chaque jour*, p.139. 287.

공동휴식 동안, 종종 성녀 데레사의 조카인 데레시타(Teresita)의 친절에 감탄하곤 했으며, 개신교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진 프랑스 교회의 붕괴 소식이나 서양에서 건너간 신대륙 사람들의 도덕적인 비참함에 관한 소식을 나눴다.

이런 일련의 공동휴식을 통해 성녀 데레사의 영혼의 생명 전체가 빛을 발했으며 그분의 딸 수녀들이 함께 나눈 모든 선물도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하느님의 눈길 아래 일으켜진 그분의 딸 수녀들은 [공동휴식을 통해] 쉬고 재창조되어 엄격한 규칙의 멍에를 다시 멜 수 있었으며 자기 수녀원의 침묵 속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임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감미로운 동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 II. 본성적 활동에 대한 금욕

잡담과 같은 본성적 활동은 침묵을 방해할 수 있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느끼게 하신다. 본성적 활동은 이처럼 민감한 실천적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한 경험은 고통스러우리만치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기관들에 부여하는 방향, 그리고 수고와 함께, 또한 그것이 일으키는 신경과민과 함께, 이것에 수반되는 염려와 함께, 본성적 활동은 영혼을 흐트러트리며 잠심(潛心)을 파괴하고, 다시금 기도로 돌아가는 데 많은 장애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강제로 기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기도를 아주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그런 본성적 활동이 일상의 삶에서 과도하게 되어, 기도를 위해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고요한 회귀를 위해 전혀 여백을 할애하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밖에 할애할 수밖에 없다면, 그 활동은 활동

주의가 되고 만다. 활동주의는 수많은 변명, 특히 고상한 변명으로 정당화되곤 한다. 삶의 필요, 급박한 상황에 대한 의무들, 끌어당기고 흐트러트리는 환경에 대한 걱정, 기도에서 유래하는 걸로 보기에 아무 쓸데도 없는 메마름과 파괴, 특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과도한 동정, 그들의 극단적인 물질적 영적 비참함은 우리의 그리스도교적 애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활동주의는 굴복하고 마는 성향처럼 습관적으로 드러난다. 종종 그것은 실천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사변적인 오류가 될 수 있으며 상당히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그럼으로써 이는 초자연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 오직 인간 활동의 가치만 신뢰하게 하는 일종의 종교적 실증주의(實證主義)<sup>4)</sup>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므로 이는 하루 중에 상당 부분을 고요한 기도를 위해 유보하는 것, 특히 일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심오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기도와 희생에 전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락하지도 않는다.

행동들에 대한 이단은 본성적 경향이나 잘못된 굳은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활동을 간과하고 실제로 부인하며 사람들을 모든 영성 생활의 원수로 만

4) 역자 주: 실증주의는 일반적으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思辨)을 배격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태도로 폭넓게 나타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는 19세기 후반 콩트(Auguste Comte, 1798~1857)를 중심으로 서유럽에서 나타난 철학의 한 경향을 가리킨다. 실증주의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의 배후에 초월적인 존재나 형이상학적인 원인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경험적으로 주어진 사실에 인식의 대상을 제한한다. 그리고 사실들 간에 성립하는 관계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그 자체로 해명하려고 한다. 곧 실증주의는 근대 자연과학의 방법과 성과에 기초해 물리적 세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현상들까지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지적 태도로서 나타났다.

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외적으로 많은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직 자체를 불모지로 만들고, 종종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고통스러운 파멸로 인도한다.

역으로, 반대되는 영역, 즉 관상적인 영역에서는 활동 생활에 대한 열시까지 이어질 정도로 활동에 대한 평가절하, 또는 오직 관상 생활만 높은 성성(聖性)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확신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실천적인 오류는 활동의 위험들에 대해 갖는 과장된 두려움 그리고 하느님과의 합일에서 오는 위로들에 지나치게 연결된 영적 탐욕에 의해 강화된다.<sup>5)</sup>

1. 성부 하느님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분은 순수 현실태이시며 동시에 빛이요 영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분은 당신의 삼위일체적 생명의 내밀한 작용들을 통해 당신의 생명이 세상 안에 주입되어 흘러넘치는 데 손상을 주지 않은 채, “모든 것의 장인(匠人)”(지혜 7,21)이며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 가며 만

5) 성녀 데레사는 종종 관상가들의 이런 편견이나 경향에 맞서 싸워야 할 염려를 갖고 있었다. 다음은 이에 관해 성녀가 『창립사』 5장에서 언급한 것이다: “애덕과 순명이라는 그리도 좋은 일을 하기에 하루의 태반을 고요 중에 잠겨 있지 못하고, 하느님께 빨려 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된 영문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아주 미묘한 자애심으로, 하느님보다 우리의 만족을 찾고 있다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님께서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기 시작한 영혼은 일하는 것보다, 육신이 쉬고 영혼은 영적 기쁨에 잠기는 것을 더 즐겨워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홀로 있는 고요를 떠난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의 둘째 이유는 혼자 있으면 하느님께 죄를 지을 기회를 덜 만나 영혼을 고독 가운데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 자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온전히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움을 품은 이에게 넘어질 기회가 드물다는 것은 확실히 큰 위로입니다. 제 생각에 하느님께 위로 받기 위한 것보다 이 같은 두려움은 우리가 피조물과의 사귀를 피하려는 데 큰 이유임에 틀림 없습니다. 나의 파님들이여, 사랑을 드러내야 할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구석에 숨지 말고 닦친 기회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창 5, 4. 14-15).

물을 훌륭히 통솔하는”(지혜 8,1) 당신 지혜의 활동을 관상하고 출산하신다.

2.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참여인 애덕은 하느님처럼 관상적이고 활동적이다. 그것은 스스로 퍼져 나가며 자신의 활동을 기도, 희생과 함께 드러내며 외적인 활동으로도 드러낸다. 사도 성 야고보는 영 또는 느낌의 단순한 내적 수용인 믿음에 대해 말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14-17).

십자가의 성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삶의 저녁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 심판받을 것입니다.”<sup>6)</sup> 그러나 우리 주님은 행동과 함께 표현된 이 사랑에 대해 좀 더 정확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sup>7)</sup> 이 사랑은 변모적 합일을 향한 완전한 발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힘과 함께 사도직 행동들을 향해 움직인다:

“이제 와서는 주님을 섬길 욕망이 어찌나 크던지, 자기들로 해서 하느님이 찬미를 더 받으시고 어느 영혼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죽기는커녕 몇몇 해

6) 빛과 사랑의 말씀, 59.

7) 마태 25, 34-35.

를 오랫동안 살면서 실컷 고생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하찮다 하더라도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하느님을 꼭 뵈오리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sup>8)</sup>

다음으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성심의 마리아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성소를 이루고 싶고 종말까지 모든 괴로움을 받으며 수고하고 싶다는 자신의 열렬한 갈망들에 대해 말한다. 사랑이 필수적인 방식으로 요구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단죄할 수 있을까? 더욱이, 신학은 성 토마스와 함께 신비적인 삶(이 삶에서 관상은 비옥한 행동을 통해 발전한다)을 가장 완전한 삶의 형태로, 따라서 그 자체로 순수 관상적인 삶보다 우위에 있는 삶의 형태로 여긴다.

3.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이 교리가 아주 단순한 형태로 가르치는 바는, 인간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기관의 활동을 통해 그분을 섬기라는 의미이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인간 활동을 보다 큰 당신의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집어넣으신 것은 가장 탁월하고 놀랄만한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건설하시며 사도들을 비롯해 그들의 후계자들이 도구로서 공헌하는 협력과 함께 영혼들을 성화하신다.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sup>9)</sup> 바오로는 씨앗을 뿌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자라게 하신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sup>10)</sup>

8) 7궁 3, 6.

9) 마태 28, 19.

10) 로마 10, 14.

만일 사제들이 강론을 하지 않고 [빵을] 축성하지 않으며 수고하지 않는다면, 영혼들은 나약하게 되어 죽어가고 말 것이다. 만일 사제가 없다면, 믿음은 사라지고 만다. 만일 사제가 없이 본당이 20년 동안 방치된다면, 거기서 짐승들만 [하느님을] 흠숭하게 되리라고 아르스의 본당 신부[인성 비안네]는 말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사제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거룩하다면, 그리스도교 생활은 발전하게 되고 성성(聖性) 역시 꽃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 사도적 활동은 신적인 삶의 발전 속에서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주 중요하다.

(다음 호에 계속)

(11쪽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순명서약을 상호 협력을 위한 서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명은 영어로 “obedience” 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ab-audiere” 로 뜻은 ‘귀담아 듣는다’ 는 뜻입니다. 순명이 요구하는 것은 잘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이해해야 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순명은 궁극적으로는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수평적인 상호신뢰와 호혜성(互惠性)을 지향하는 문화로 가기 위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 오너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필리피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순명이란 덕 안에서 남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 아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죽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영혼의 성 연구 \*

## 예수의 성녀 테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2)

키에란 카바나프, O.C.D./ 캐롤 리시, O.C.D.S.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 제 6 공방

#### 제9장

#### 하느님께서서는 상상적 현시를 통하여 어떻게 (영혼과) 사귀시는가

1. (1항) 테레사는 여기에서 상상적 현시에 대하여 쓰는데, 그녀는 상상적 현시가 우리 본성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지적 현시보다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악마가 지적 현시들보다 이러한 현시에 더 많이 끼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2. (2-3항) 그녀는 주님께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어떻게 엿볼 수 있게 해주시는지를 묘사해 주는 성물함 안에 있는 귀중하고 치유력이 있는 돌의 비유를 소개한다. 그녀는 이러한 현시는 매우 빨리 일어나지만 그 이미지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특히 이러한 종류의 현시는 주님의 거룩한 인성에 대한 현시이다.

3. (4-9항) 여기에서 테레사는 상상적 시현들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시현은 그 강렬함 때문에 빨리 지나간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 시현은 외적 감각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시각을 통해서 온다. 그 영혼은 그 시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한다고 테레사는 말하고, 이러한 종류의 시현을 경험한 사람의 영혼에게 내리는 심오한 효과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녀는 또한 진정한 시현들의 양상과 효과들을 초자연적이지 않은 다른 종류의 경험들과 대비시킨다.

4. (10-12항) 테레사는 상상적 시현의 경험을 사도 바오로의 개종 경험과 비교한다. 그녀는 또한 상상적 시현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다. 악마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만 실패할 것이다. 영혼이 그러한 시현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고해사제들은 시현의 진정성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것이고, 영혼 안에 남아 있는 효과들을 찾으려 마땅히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겪은 고해사제들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5. (13-14항) 테레사는 그녀가 주님의 시현을 보았을 때 한 고해사제로부터 불경한 태도를 취한다는 말을 듣고 고통을 받은 사실을 말한다. 그녀는 주님의 이미지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악마로부터 온 것이든,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경할 가치가 있으므로 그 이미지를 항상 공경하라는 다른 고해사제로부터 받은 좋은 충고를 반복해서 말한다. 그녀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기억할 때 받은 커다란 유익

함과 위로에 대하여 썼다.

6. (15-16항) 데레사는 이러한 상상적 시현의 길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겸손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한 소망을 통해서 그 사람은 쉽게 악마에게 속는다. 세 번째, 상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네 번째, 우리는 그 문제를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시는 주님께 맡겨 드려야만 한다. 다섯 번째, 그 길의 시련들은 너무나도 크고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다. 여섯 번째,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녀는 가장 안전한 길이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7. (17-18항) 데레사는 상상적 시현이 덕을 지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덕을 쌓는 것이 더 많은 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상적 시현에 대한 논의를 맺는다. 데레사는 시현들의 만족 없이 (하느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사랑에 불타는 영혼들의 특징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그러한 사랑-자기 잇속을 차리려는 동기가 없는 사랑-을 가장 커다란 사랑으로 보았다.

## 설 명

1. 그리스도의 재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특히 우리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다. 데레사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신학자나 성경 학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육신을 우리 감각적 경험<sup>11)</sup>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신자들이나 신비가에게 그

단어는 영광스럽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러한 실체에 대한 인간 지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시고 거기에 현존하시는 영광의 주님의 권능에 동의한다. 사도행전과 다른 곳에 나와 있듯이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재현은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apparition-유령)”이나 “나는 그분을 뵈었다(vision-현시)”와 같은 고전적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한다. 대부분의 신비가들처럼 데레사는 바오로와 똑같은 이러한 경험, 지금은 그녀에게 일어난 경험을 표현하기 위하여 ‘현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신비가들에게는 일종의 평범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영혼의 성」의 주제를 교의적으로 통합하여 소개한다.

2. 이제 상상적 시현으로 넘어 갑시다. 악마가 앞서 말했던 시현보다 여기에서 더 많이 끼어든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적 시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면, 우리 본성에 더 적절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욱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궁방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시현들과 비교하면 다른 시현들은 그러한 것들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성」 6, 9, 1).

이렇게 시작되는 제9장의 본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본문들에서처럼 데레사는 신비적 시현들과 함께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이 장에서 신비적 현시와 다른 현시, 혹은 환시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작업을 한다. 이 짧은 소개 글의 또 다른 면은 그러한 시현을 받은 사람이 비정상적이 되기 더 쉽거나 악마에게 더 속

11) 자극에 대한 다름어지지 않은 기초적 인식

기 쉽다고 신학자들과 다른 이들이 이러한 상상적 시현들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현들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참으로 신비적 경험들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본성에 더 적절하기 때문에' 순전히 영적인 체험들보다 더욱 유익하다. 지적 현시들과 상상적 현시들을 구분한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노와 같은 신학자들이었다. 우리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신비적 경험들의 이러한 사다리가 데레사 자신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받은 은총들은 주님께서 주신 순전히 영적인 체험들(지적 현시들)로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육체적 인성에 대한 경험들(상상적 시현)이 온다. 마침내 이러한 과정은 제7궁방의 삼위일체적 경험들 안에서 끝맺음을 한다.

3. 데레사는 참된 신비적 경험과 거짓 현시를 어떻게 분명하게 구분하는가? 데레사가 우리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력이나 지성이 너무나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그녀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인 것 같다는 정도까지 상상에 빠져들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험을 그녀가 많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들은 상상력으로 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데레사는 생각했다. 그들의 상상력은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고 차가워진다. 참된 시현은 갑자기 오고, 모든 기능들과 감각들을 커다란 두려움과 혼란으로 뒤섞고, 그 이후에 행복한 평화 속에 잠기게 한다. "성 바오로가 땅바닥에 쓰러졌을 때 하늘이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여기 이러한 내적 세계에도 커다란 혼란이"(10항) 있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요가 찾아온다. 그 영혼은 너무나 많은 진리를 잘 배우게 되어 다른 그 어떤 스승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그 영혼이 고해사제에

게 자기 기도에 대하여 적나라하고 진실하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데레사는 자신의 고해사제의 무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4. 주님의 고우심과 장엄하심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께서 주님이신지를 영혼이 어떻게 아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당신께서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그 고우심과 장엄하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님의 고우심을 보는 것은 영혼의 온 존재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랑의 정서적 측면을 넘어서, 시현들은 그 영혼에게 빛과 진리를 알려준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땅바닥에 쓰러졌던 바오로의 경험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반복된다.

5. 마지막으로, 데레사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이끄시기를 바라거나 간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한다. 데레사가 언급했던 이유들 중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띈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여정의 토대를 겸손에 두는데, 그것은 그러한 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즐거움 속에서보다 희생과 십자가로 그들의 사랑을 훨씬 더 잘 보여준다. 데레사는 시현들과 황홀경에 대한 무질서한 욕망이 어떻게 하느님과의 합일을 방해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들을 읽을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아마도 그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직접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주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그 중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커다란 기쁨도 없

이 스스로 희생하며 지존을 섬기기를 너무나 원했고,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심에 대하여 불평하였고, 이러한 선물들을 받는 것을 즐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성」 6, 9, 17).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의 요한과 데레사였다.

6. 동시에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인식한다(Roman Missal, Preface of Christmas I). 그리스도의 육신의 개성은 하느님의 아드님의 신적 위격을 표현한다. 당신은 성화로 그려질 때 그 모습이 숭배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당신의 인간 육신의 모습을 당신 스스로 만드셨다. '이콘을 흠송하는 신자들은 그 성화상 안에 그려진 분을 흠송하는 것'(제2차 니체아 공의회, DS 601)이기 때문이다.

### 논의를 위한 질문

1. 상상적 시현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적 환시들보다 더 유익한 이유가 무엇인가?
2. 영혼은 이러한 현시들을 볼 수 있는가?
3.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고해사제에게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말하기를 피해야만 하는가?
4.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현시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 호에 계속)

(27쪽에서)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는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더 기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 하느님의 변화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런 세 가지 커다란 힘들로 인하여, 우리 삶의 완전한 잠재력이 하느님께 다다르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덕들은 하느님보다 못한 것에서 영혼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혼을 하느님과 합일시키는 일을 한다" (「밤」 2,21,11). 현대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종교적인 사람들까지 사소한 생각들과 희망들과 사랑들에 빠져있을 때,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우리의 삶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들과 희망들과 사랑들로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러한 선물의 결과로 우리 삶의 모든 면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어두운 밤 연구 \*

##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18)

레오나드 두한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영혼의 노래』에서 요한은 그가 이해한 바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영혼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소유할 때까지 만족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뵙고 싶다는 갈망과 욕만 커지게 하기 때문이다” (『노래』 6,4). 사랑의 정화와 조명 이후에 요한은 “아, 위대하신 사랑의 주 하느님! 당신이 아닌 것은 사랑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이에게 당신께서는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주시지요!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고 사랑으로 그 영혼과 하나가 되지 않으십니까!” (『편지』 11)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사랑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가득 채워준다.

얼어붙은 마음을 터뜨리려고 위협하는, 지속적으로 사랑이 부족한 우리 시대의 세상에서 사랑에 전념하는 요한의 세상에 대한 통찰력은 혁명적이다. 어두운 밤을 통하여 나아가는 여정의 강렬함으로 인하여 영혼들은 이기적인 개인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며 자기 문제에만 몰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봉사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두운 밤』이라는 책은 영혼을 신적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룬다. 이것이 삶 전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밤』

2,5,1)을 가르치시고, 포기하는 법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요한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도 원칙을 가지고 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으시고 사랑을 고집어내십시오” (『편지』 26). 밤의 끝 무렵에 사랑은 강하고, 영혼은 변화되고, 거동을 하도록 훈련되고, 하느님의 뜻과의 합일 속에서 성령께 대하여 민감해지고, 그의 관상은 사랑의 완전한 합일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은 선물이고, 동기부여이고, 목표이며 이 여정의 상급이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이다” (『노래』 38,5).

### 우리가 불림을 받은 그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기

요한은 그 자신의 믿음과 사랑의 여정에서 하느님과의 합일과 자아의 완전한 쇄신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전념했다. 그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소망을 위하여 자신을 거절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이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영혼은 자신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 (『노래』 29,11). 요한에게 개인적 변화란 하느님과의 합일을 찾는 것의 부산물이었다. 그러나 더 적은 자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훌륭한 2차적 결과를 가져다준다. “사람은 자신의 하느님이나 그리스도인의 완덕이 요구하는 것을 위하여 영혼이 현세적인 것의 기쁨을 멀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영

적인 유익함 이외에 그것에 따라오는 현세적인 유익함 때문에도 그렇게 해야만 하며, 앞서 말한 모든 기쁨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만 한다. …자유로움의 덕도 얻기 때문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 이성의 밝음, 고요, 평온과 하느님께 대한 평화로운 신뢰도 얻는다. …그들은 피조물로부터 더 큰 기쁨과 휴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지견을 더 많이 얻는다”(『산길』 3,20,2). 요한의 시의 아름다움, 영적 지도에서의 그의 식견,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그의 따뜻함과 애정, 그가 지도하는 이들에 대한 공감, 그리고 생의 마지막 시간의 평화와 내어맡김에서 보듯이, 그는 이러한 변화의 유익함을 경험했다.

인간 발전의 으뜸가는 목적은 하느님과의 합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랑스러운 합일 안에서 신적 생명으로 가득차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불꽃』 1,12). 그 밤의 가난과 벗음은 우리를 공허하게 놔두지 않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삶에 만족하도록 이끈다. “아! 영혼이 감각의 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행운” 인가!…그러한 것을 맛본 영혼은… 영의 삶이 얼마나 참된 자유이며 헤아릴 수 없는 보화들을 가져다주는 부유함인지를 알게 된다”(『밤』 2,14,3). 영적·종교적·감각적 수준의 삶이 모두 쇠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각들조차 모두 새로운 힘과 영의 안내 아래에서 훈련을 받는다. 요한의 가르멜 산 그림을 보면, 그 밤을 통하여 나아가는 여정의 목표는 가르멜 산의 정상 주변에 두었던 성령의 선물들에 잠기는 것이다. 그 목표는 삶의 깊은 풍요로움을 포함한다. 밤의 여정은 우리에게서 인간성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들을 개선하

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것은 인간의 성취를 위한 여정이다.

사람이 불림을 받은 그 사람이 되도록 변화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대신덕을 통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영향이다.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대상인 하느님께로 다시 돌리시면서, 하느님께서 사람은 그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신다(『밤』 2,4,2). 지성은 지식이나 정보의 대상, 특히 하느님께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빠져서 움작달작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그 영혼이 갈망하는 진정한 대상은 하느님과의 합일에 대한 소망이어야만 하는데, 기억은 과거의 선물들이나 피해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애착하는 감정들과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그 에너지와 정신을 낭비하고 있다. 의지는 그 에너지를 소망하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너무나 쉽게 흩어지게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이신 전부(todo)에 대한 하나의 사랑의 행위만을 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힘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영의 세 가지 힘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 만드는 것이다. 교회의 교부들은 인간을, 하느님을 알고 바라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capax Dei 하느님을 담는 존재” 라고 정의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서 요한은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윤리적 덕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러한 대신덕을 경험하게 되는 수동적인 자세를 강조한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관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한은 이러한 세 가지 덕을 영혼이 하느님을 더욱 기쁘게 해 드리고 세상의 커다란 악들로부터 숨고,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기 위하여 입는 변복으로 말한다(『밤』 2,21).

믿음이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 공동체 스스로의 이해를 포함하는 반면, 요한이 강

조한 것은 특히 하느님에 대한 경험으로서의 믿음이다. “믿음은 바로 그 하느님을 우리에게 주고 또한 전해 준다” (『노래』 12,4. 1,10). 교회와 그 가르침에 대한 그의 관점에서나 신비적 관점에서도, 또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강조하는 점에서도 믿음에 대한 요한의 접근법은 매우 구체적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지성에게 캄캄한 어두움이신 것처럼 믿음도 역시 우리 지성을 눈멀게 하고 눈부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수단을 통해서만-모든 지성을 초월하는 거룩한 빛 속에서-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영혼은 믿음을 더 많이 가질수록 하느님과 더욱 많이 합일하게 되는 것이다” (『산길』 2,9,1).

희망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 우리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믿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빈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삶의 총만함이다.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대한 희망의 비전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한다. “성 바오로는 희망을 ‘구원의 투구’ (1테살 5, 8)라고 부른다. 투구는 눈으로 하여금 위만 쳐다보고 다른 어느 곳도 볼 수 없도록 하는 앞 차양을 제외하면 노출되는 곳이 없도록 머리 전체를 보호해 주고 덮어 주는 무기이다. 그렇게 희망은 영혼의 머리의 모든 감각을 덮어서, 영혼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빠지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화살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지 않게 해 주는 특성을 가졌다. 희망이 영혼 안에서 이루는 일은 그 눈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올려다보도록 하는 것이다” (『밤』 2,21,7). 관상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변화를 통하여 영혼은 기억의 대상들(『산길』 3,11)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산길』 3,9,4), “완전한 희망을 통한 하느님과의 합일” (『산길』 3,11,2)을 추구한다. 하느님께서서는 희망이 깊어지게 하시고, 기억

은 옆으로 제쳐두며, “하느님만 희망” 하도록 영혼을 움직이신다. 영혼을 움직이고 승리하도록 해 주는 것은 불굴의 희망이기에,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밤』 2,21,8). 우리의 기억들은 과거를 붙잡거나 소유하고 진정한 미래가 아닌 것을 기대하도록 한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하느님을 소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는 희망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밤』 2,21,9).

하느님의 변화적 선물의 세 번째 요소는 참된 사랑이다. “애덕은 하느님이 아닌 그 모든 것에 대한 의지의 애착과 욕들을 비우고 없애고 의지를 하느님께만 두게 한다. 그리하여 이 덕은 이 기능을 준비시켜서 사랑으로 하느님과 합일시킨다” (『밤』 2,21,11). 애덕은 “마지막 손길”이며 “다른 두 덕들에게 우아함”을 주고 “영혼을 높여서 하느님 가까이”에 둔다. 게다가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그 어떤 자신의 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애덕이 없으면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덕도 사랑스럽지 않다” (『밤』 2,21,10).

그러므로 하느님 사랑의 이러한 변화적 선물은 이 여정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준다. 그것은 사랑으로 속속 물든 하느님께 대한 지식이나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랑의 학문인 관상은 “하느님께서 주입시켜 주신 사랑스러운 지견인데, 그 지견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올라갈 때까지 매 단계마다 영혼을 비추는 동시에 사랑으로 불태운다. 영혼을 하느님과 합일시키고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이다”(『밤』 2,18,5).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사랑 속에서 신적 생명으로 이끄시며 사랑의 합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정이다. (24쪽으로)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내님은 나의 것 (Mi Amado para mi)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나 오로지 날 바쳤으니  
내님은 나의 것  
나는 내님의 것  
이러히 바꿈질 하였노라.

상냥하신 사냥꾼이  
나를 쏘아 넘어뜨려  
기진(氣盡)한 내 영혼이  
그의 팔에 안겼을 제  
새로운 삶을 얻어  
이러히 바꿈질 하였나니  
내님은 나의 것  
나는 내님의 것.

사랑으로 독을 먹인  
화살로 나를 찔러  
내 영혼은 그 내신 님과  
하나가 되어 버렸으니  
다신 어느 사랑도 원치 않노라  
내 하느님께 나를 바쳤음에야  
내님은 나의 것  
나는 내님의 것.

### 해설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지은 30여 편의 시 중에서 지난달에 소개한 <인내> 외에도 이미 우리말로 번역 되어 약 60년 전에 출판된 것이 24편이나 있다.

이번 달부터 소개하는 시는 1963년에 가톨릭출판사에서 나온 최민순 신부님의 시집 <밤>에서 신부님의 자작시 외에 번역시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와 함께 발표한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에서 발췌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최민순(1912~1975) 신부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학덕이 뛰어나셨던 분으로 초창기 한국 가르멜 수도회에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신 분이시다. 신부님은 1960년대 초반에 3년 동안 스페인에서 신비신학을 공부하신 후 귀국하여,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서울 가톨릭대학교 교수신부님으로서 신학생들에게 영성신학과 교의신학을 가르치시면서 영성지도를 하였고, 1967년부터는 몇 년 동안 서울 가르멜 수녀원의 지도신부를 겸하셨다. 신부님께서서는 1960년대에 이미 가르멜 수도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녀 데레사의 <완덕의 길>과 <영혼의 성>, 그리고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을 번역 출판하여 우리 수도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에 영적 양식을 제공하셨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신부님은 1974년 총장님으로부터 명예 가르멜 회원 표창장을 받으셨고, 그 밖에도

신부님이 번역하신 단테의 <신곡>,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로 한국 문단으로부터 번역상을 받았으며,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시편>은 현재까지 성무일도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문 중에서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은 신부님이 번역하셨다고 알려져 있다.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를 읽으면서 종종 접하게 되는 순수한 우리말의 고아(高雅)한 시어(詩語)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지 않는 말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말의 원래의 의미와 비슷한 말을 찾아 그 말을 쓰게 되는 경우와 상황들을 참조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한다.

성녀의 시(詩)들은 대부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쓰신 즉흥시라 심오한 뜻을 지닌 어려운 말이나, 그 시대의 학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사용하던 수사학적(修辭學的)인 기교 같은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성녀의 시가 자연스럽게 쉽게 읽혀진다고 해서 현대문학의 한 가지 현상처럼 단순히 감성과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성녀의 시는 대부분이 자신의 영적체험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에 소개한 성녀의 시는 성녀가 보통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하느님이 어떤 이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의 하나로 신비한 관상의 경지인, 하느님과의 영적합일에 들어갔다가 일상으로 돌아온 뒤 그 체험을 표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어느 순간에 성녀가 관상의 상태에 들어가, 예수님과 영적약혼 또는 영적혼인을 체험한 후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 감흥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의 첫째 연과 두 번째 연에서 나오는 <바꿈질>이란 말은 '교환' 이라고 알아들으면 된다.\*

(31쪽에서)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지계에 실은 짐이 많아서, '아니오.' 라고 거절하지 못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아서, 관계가 망가질까 두려워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나 여기 있소. 우리 만날 시간이오.' 라고 부르시는 신량을 기다리게 한다. 누군가를 5분만 기다려도 열불이 나는데, 신량은 기약 없이, 하염없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이다.

성녀의 말씀대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은혜(합일)를 우리 잘못으로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라! 영원히 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는 신량을 놔두고,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나가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였던 거다. 그러니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 단호하게 말해보자. 아래의 명대사를 상기하면 힘이 불끈 솟으리라.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겁이 많고 비천한 것이므로 하느님이 용기를 주시지 않는 한,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님을 모시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영혼의 성 6.4.1-2)

##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미안하고 불편하지만, “아니오!”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어느 성탄의 밤, 구유 앞에서의 기억이 새롭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참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 소녀, 정말 겁 없다. 꿈속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순진무구 그 자체다. 그 상황에 ‘예’ 라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 용기였다. 만약에 두 분이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에 매여, ‘아니오.’ 라고 했더라면... 또는 ‘지금 당장 말고 좀 이따가요.’ 라며 회피했더라면... 하느님의 길거리 캐스팅은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아기를 키우며 몸 고생 맘고생이 얼마였던가.

예수님은 이렇듯 불안한 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셨다. 먹고 살 걱정, 이해받지 못한 아기의 출생.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미래의 상황들이 그랬다. 그런데 마구간의 이 가족은 왜 이리 평화로운가 말이다. 구유에 누운 아기의 표정이 세상 태평하고, 엄마와 아빠의 눈빛은 사랑으로 그윽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높으신 이의 힘이 자신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뱃심이 두둑해진 것이다.

하느님께 ‘예’ 는, 세속의 ‘아니오.’ 를 의미한다. 더 편하고 넓은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끊고 거절할 줄 아는 용기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은 가족 심리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요, 의사소통 법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찌 이리 ‘예, 아니오.’ 가 분명하다냐.

“너희는 말 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 5,37)

임상사목교육(CPE, 영적돌봄가 과정)에서 내가 목표로 세우고 훈련한 것이 있다. “내 의사와 생각을 ‘예, 아니오.’ 로 분명히 표현하겠다. 부드럽게 거절하고, 감정의 좋고 싫음을 유보하지 않고 그때그때 표현해보겠다.” 남들에게겐 쉬워 보이나, 나에게겐 어려운 약점이다.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느낄 불안과 죄책감이 두려워, 애써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역동이, ‘아니오.’ 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예스맨이 되도록 자극했던 것이다. 또 상대가 상처 받을까봐 내 뜻을 분명히 전하지 못하고, 혼자 맘고생 했던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데레사 성녀께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것을 교만이라 하시며, 이탈을 강조하셨다. ‘예, 아니오.’ 가 분명치 않아 손해를 보는 건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다. 매일의 정신기도에서 맺어지는 신랑, 신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부의 역할이 어떻게 방해받고 있는지 리스트를 짜 불러치면 한

바닥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친정엄마의 희생에 동참하며 감정을 공유해왔다. 장녀로서 엄마의 짐(십자가)까지 지게에 싣고 힘겹게 책임져 왔던 거다. 얼핏 보면 착하고 가특한 딸이지만 천만의 말씀, 그 때문에 신랑이신 주님과 호젓하게 사귀는 것에 방해를 받았다. 엄마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엄마, 아니오. 지금은 주님께 가야 할 때예요.’ 라며 거절하지 못하고, 에스만의 기지를 발휘했던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그러다보니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몫, 신랑의 신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놓칠 때가 많았다. 예수님처럼 단호한 모습으로 무장하고 신랑께 달려갔더라면... 일취월장, 장족의 발전, 혁혁한 진보가 있었으리라. 데레사 성녀께서 강조하신 이탈과 거리두기는 이렇듯 생존하기 위해 만든 나의 신념과 고정관념에 의해 걸림돌이 되곤 한다. 유착된 관계의 이탈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계속 훈련하고 있다.

성모님의 이탈 정신과 예수님의 ‘아니오.’ 정신을 소환해보자. 뱃속에 품고 도망 다니며 지켜낸 아들, 그래서 더 집착할 만한데, 항상 거리두기를 하셨다. 그 끝판왕의 절정은... 길에서 어린 아들을 잃고, 삼일을 미친 사람 마냥 찾아 헤매다 성전에서 찾으신 성모님,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 있었구나. 내가 못 산다 정말.” (아들) “어머니, 설마 제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다는 말씀?” 아들은 당돌했고 어머니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걸 약과다. 이보다 더한 거리두기 컨셉, 예수님의 참 가족(마태 12.46-50) 사건이다. 예수님이 군중에게 설교하실 때,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매몰찬 모습이다. 만약 이때 성모님께서, “헐, 아들아. 나도 하느님 뜻 땀에 널 날랐거든? 아무리 하느님의 아들이라지만 정나미가 툭 떨어지네.” 하고 반응했다더라면, 예수님의 공생활은 더 파란만장했을 터다. 카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또 어떨까! 잔치 분위기를 살피며,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품 한번 잡아보려던 찰나, “여인이시여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다. 나 같으면 거절당한 수치감을 감추지 못하고, “너 사람들 보는데서 이게 뭐하는 짓?” 이라며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성모님은, “예 아드님. 그렇고말고요.” 하시며 상황을 중재하셨다.

예수님의 ‘아니오.’는 단호했고, 성모님의 ‘예’는 숭고했다. 가르멜인들 중, 어떤 이는 이탈이 어렵고, 어떤 이는 순명이 어렵단다. 나 역시 종신서약을 하고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었어도 둘 다 어렵다. 일상에서 ‘예, 아니오.’ 라고 선택할 기회가 종종 있지만, 무엇보다 정신기도 시간이 그럴지 앓나 싶다. 가장 좋은 몫 한 가지를 택한 마리아의 머무름이, 무분별한 관계성이나 스스로 만든 신념체계 곧,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지금 꼭 해야만 한다. 완벽해야 한다. 약자를 도와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등에 몰입되어, 마르타의 분주함에 묻힐 때가 많다.

(29쪽으로)

\* 선교 \*

##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양상룡(로사리오의 도미니코)신부

내가 어찌지 못하는 코로나19의 상황(어둠)과 내가 바꿀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사고의 전환(빛)

세상만사 모든 것에는 다 명암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악법도 법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겠는가? 그 얘기는 악법이 설사 나쁜 법이지만 그래도 무법보다는 낫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못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서 일부 부당하고 불공평한 법일지라도 법 없이 사는 것 그래서 무법천지 멋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회와 제도를 이끌어주는 틀이 되기에 그런 법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는 나 혼자만의 생각에서 나온 궤변적인 논리일지도 모른다. 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는지는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법도 알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든 것에는 음양의 양면이 있다는 것, 즉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고, 또 좋고 유익한 어떤 것도 그 안에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정적인 요소가 잠재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지루하게 해를 넘기며 끌어온 코로나19, 이제는 아주 익숙해진 단어이고 오랜 옛 친구처럼 낯익은 단어가 되어 버렸다. 1년이란 시간을 보내며 하루에 적어도 십여 차례는 들어왔을 단어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독감과 같은 단순한 전염병으로 알려지더니 그리고 좀 지나서는 조류독감이나 사스와 같은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바이러스로 인식되고 또 얼마 더 지나서는 20세기 초반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스페인 독감과 같이 인식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엔 유사 이래 처음으로 페스트와 스페인독감처럼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을 폭격한 3차 세계대전과 같이 독감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조차 경제적인 손실과 폭망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대형 참사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막막한 무수히 많은 소시민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인 위축으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소상공인들, 각국의 국경을 강화하고 여행을 억제함으로써 해서 생긴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파산으로 인해 그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 코로나로 인해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학생들, 특히 초, 중, 고, 대학생 새내기들의 어정쩡한 모니터를 통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어설픈 만남과 낯선 사귄... 더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나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내 손 밖에 있는 이유로 해서 생기는 어두운 단면들이다.

그러면 이런 내가 어찌지 못하는 상황이 주는 어두운 면과 달리 내 생각의 전환, 나의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보고 밝은 면을 찾아 나가

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어두움에 빛을... 폴레도 감옥에서 같은 수도회의 형제들에게 감금되어서 자신을 독살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편집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내가 하려는 수도회의 개혁이 혹 하느님의 뜻이 아닌 나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에서 나온 행동은 아닌지 혼란스럽기도 한 상태에 떨어지기도 한 십자가의 요한,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 같은 수도회의 형제들이 십자가의 요한을 오해하고 그를 가톨릭과 가르멜 수도회의 위험인물로 간주해서 폴레도에 감금한 것이 맞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수도회의 개혁이 틀린 것은 아닌가? 하는 혼란과 어두움 속에 십자가의 요한을 비춰준 것은 '믿음'이라는 신앙의 빛줄기에 의지해서 오로지 하느님만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Solo Dios Basta(오로지 하느님만으로)" 비움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힘으로 수도회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어두움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빛(밝은 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좌절과 슬픔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메시지를 찾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나 개인적으로 그 빛을 찾아본다면 우선 코로나19는 내게 은인이다. 코로나가 준 시간적 여유 때문에 아주 심각할 수 있었던 심장 이상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 단 하나 이 이유만으로도 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없다. 둘째 코로나19는 중국에서 가지지 못했던 개인 피정의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작년 12월에 하느님 말씀 안에서 침잠하고 깊이 빠질 수 있는 피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도 8박9일의 성서통독 단식 피정... 처음엔 신구약성경 통독 피정을 하

고 싶었으나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약성서통독 단식 피정이었다. 하지만 단식 피정은 조금도 맘에 두고 있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음식의 절제와 말씀의 보충으로 피정을 하리라 각오하고 평생 제일 긴 단식 피정에 들어갔다. 그 덕에 매년 당뇨와 혈압 등으로 정기검진 때마다 체중감량을 요구해 오던 여의사선생님의 명령에 처음으로 따를 수 있는 행운도 따라왔다. 피정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여의사의 요구인 4~5킬로의 감량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코로나19의 도움이었다. 물론 단식 후 보식과정에서 거의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피정 전보다는 몸이 많이 가벼워진 듯 느껴진다. 단지 심리적인 느낌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8박9일간의 피정이 준 말씀과 함께한 시간은 은총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우리의 일상사에 코로나19가 주는 힘든 면은 분명 많지만,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긍정적인 면들 아니면 내가 찾을 수 있는 밝은 면들(우리의 노력이나 통제로 바꿀 수 있는 면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분명 그간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긍정적인 면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은 면들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가 코로나19에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이나 내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폴레도 감옥의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신앙의 빛에 의지하여 가르멜 개혁을 완수한 십자가의 요한과 같이 우리도 신앙의 빛으로 이 지리한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이를 하느님 은총의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목상글 \*

##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

윤원조(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은 일반적으로 대사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깊고 아름다운 경우가 많다.

“네가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네게로 온 것이야...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

영화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에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15살 소녀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얘기다. 영화에서 천사는 지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면 자신도 그녀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듣지도 보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거든.”

“그러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그 눈빛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존재를 인식할 때는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 그의 모든 것을 함께 숨쉬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천사인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야.”

천사는 의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인공에게 인간의 방식과 다르게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천사의 등장으로, 천사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소녀에게 죽음은 차원을 넘어 이제 내가 이별을 해야 하는 이 세계는 ‘잠시 머물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곳’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영화는 가족 여행을 떠났던 밝고 따뜻한 바닷가 휴양지에서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했던 기억과,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이곳의 춥고 눈 덮인 암울한 현실, 두 장면을 극적으로 교차시켜 보여 준다. 병에 걸리기 전 휴양지에서 만난 애뜻한 이를 향한 그리움은 밝고 환하게 빛나는 또 다른 세상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천국을 향한 본능적인 그리

움으로 대치해 볼 수 있다.

영화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따뜻하다. 마치 죽음을 앞 둔 어린 자식에게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 같다는 느낌을 준다. 그는 ‘죽음’이라는 두려운 마지막 문을 통과해야 하는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그 문 앞까지 걸어가면서 저 문 너머의 세계가 얼마나 따뜻하고 굉장한 곳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천사’는 작가의 분신일 것이다.

하지만 영화의 내용을 확장해 보면 여기에서 천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깊이로 해석된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앞 둔 어린 아이와 같다.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정녕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온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도 같습니다.” (시편 90, 3-4)

당신 향한 그리움을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심어 놓으신 하느님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당신의 자리로 남겨 놓으셨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 존재 고유 양식의 이유이며, 신앙인들은 ‘믿음’의 문을 열고 한 발짝 들어간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믿을 수 있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본향임을 좀 더 많이, 그리고 빨리 알 수 있게 이 단단하게 잠겨져 있는 비밀들이 느슨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프게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아가 8,6)

‘사랑’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우리는 하느님에 관한 모든 것을 해석해 내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는 해답이 된다. 그런 이유로 우리 인생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날마다 우리는, 노동에 시달린 당나귀인 우리 육체를 끌고 조용한 공기가 되어 신비로운 숲으로 향한다. 지상의 삶을 매일의 노동으로, 매일의 십자가로 봉헌하고 성 안으로 사라져 들어간다. 그곳은 '하느님의 시간'이다.

우리는 매일 하느님 시간 속으로 길고 긴 여행을 떠나고 동시에 여행의 끝인 숲으로 들어간다.

완전한 순수와 온전히 순수하지 못한 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 같은 곳, 인간의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은 하느님의 언어인 곳.

고단한 나귀를 몰고 들어와 겨우 한 걸음 떼어 이곳, 하느님 당신은 마냥 신비이시기에 태초의 아침에 놓인 그 길에 맨발로 선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5)

이미 그 분은 내 곁에 와 계신다. '날이 저물어 산들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닐고 계시던 당신은' (창세기 3:8) 나를 찾으시고 내 곁에 앉아 계시고 내 눈 앞에 얼굴을 마주 대고 내가 당신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선사하신 당신은 그들과 함께 하는 매 순간에 사람에게서 배척당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도 진실한 당신 사랑은 우리 각자의 영혼에 열쇠 하나씩 꽂아 두시고 끝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하셨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이렇게까지 원하시다니 어이된 일이옵니까?" (천주자비의 글 14-10)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땅.

아주 많은 날들을 당신의 시간 언저리에서 서성대기만 하다가, 당나귀를 따라 들어온 파리 떼가 시끄럽게 날아다닐 때면 영혼

은 긴 혀로 먹이를 낚아채 삼키는 두꺼비가 되기도 하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알고 보면 성질머리가 고약하기도 하다는 이 당나귀랑 나란히 앉아 즐기도 한다.

"묵상 기도- 지금은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하느님께서 비로소 인색한 나의 자유의지를 취하실 때, 그곳은 하느님의 방이고, 하느님의 마음이고 정원이고 품 안이고 말쑥이다. 하느님의 연못이고, 하느님의 바람이다.

하느님의 시간에 초대 되어서 하느님의 시를 느끼고, 하느님의 시가 된다.

내가 걸어 왔던 길은 지워지고 내 의지로 떼었다는 걸음걸이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느님 것이다.

당신의 시간이 우리를 온전히 차지할 때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를 감싼다.

내 한 방울의 눈물을 당신의 바다에 합쳐서 나를 바다가 되게도 하신다.

신이신 당신을 더 먼저 걱정하신, 사람이 신을 위로하고 눈물 흘리셨던, 데레사 성녀의 '사랑'은 하느님 시간 속 영혼들의 특별한 사랑을 얘기한다.

"기도 중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영혼, 혹은 당신이 원하시는 영혼에게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서 허다한 진리를 밝혀 주실 때 그러한 영혼은 아직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보다 훨씬 더 다르게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만드신 영혼은 이 사랑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완덕의 길 6-3)

다르게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이 사랑', 이 지령의 원천이신 당신을 찾아, 오늘도 그들은 구름이나 조용한 공기가 되어 하느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 회원의 글 \*

## 가진 것이 많으면 베풀 것이 없다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인천 맨발 가르멜 수도회는 계양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수도원이 4개가 있으니 풍수지리로 본다면 엄청나게 축복받은 마을이다. 가르멜 수도회, 전교 가르멜 수도회, 노틀담 수도회, 마리아니스트 수도회 이렇게 4곳이다. 내가 이 근처 마을에서 살던 비교적 먼 옛 시절, 새벽미사는 꼭 바쳤다. 가끔씩 수도원의 수방에서 혼자만의 하루 피정을 하곤 했다. 아마도 많이 목마르고 허기진 때였지 싶다. 어느 날 새벽미사 하던 중에 생각했다. '오늘은 휴가도 낸 날이니 하루 피정하고 싶다.' 미사 끝에, 신부님께 청했더니 그날따라 빈 수방이 없다신다. 그러시며 마리아니스트 수도원으로 연락을 해주셨다. 찾아오라 하셨다. 나는 기쁘게 쭉쭉 찾아갔다. 아마도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수도원은 추우니 옷도 든든히, 무릎담요, 성무일도, 성경책, 돋보기, 약에 따뜻한 물에 필기도구까지. 준비물만 해도 한 보따리였다. 그 보따리를 싣고 수도원을 찾으니 늑대처럼 커다란 개가 킁킁대며 요란하고 낯설게 짖어댄다. 두어 번 짐을 수방으로 옮기다가 인기척이 없었는데, 수녀님한테 들켰다. "아니, 짐이 많으시네요..." 에고머니나, 참 부끄러웠다. 보따리가 어마무시하니... 너무도 창피했다.

가난, 정결, 순명의 생활을 하는 수녀님들은 항상 단출하지만 예쁜 원피스처럼 수도복으로, 동복과 하복 두 벌로 사시는 분들이다. 그 당시 교통사고로 겁쟁이인 나는 참 많이 다치고 괴로울 때였다. 안 그래도 감기는 내 친구요, 요추 추간판탈출

증, 역류성 식도염, 피부의 연한 쪽으로는 '콕콕 바늘로 찌시는 대상포진으로 보따리가 많을 밖에. 온 사방이 조용한데 주방 쪽에서 깔깔거리며 소곤대는 목소리는 어찌면 수녀님들의 천진스러운 하루 시간 중 으뜸일지도.

한동안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오후에 일찍 퇴근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노틀담 수녀원의 사랑터를 찾았다. 내가 살던 바로 근처였기에 부담이 없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어서 사랑의 선교회 온정의 집과 함께 미역, 멸치, 토막 북어 등 건어물과 마음도 없어 날랐다. 그 시설은 어느 독지가 한 분이 이민을 가시면서 집, 장롱, 주방기구, 식기 등을 모두 기부하고 가신 집이었다. 아담한 2층 고급 저택으로 소나무도 멋지고 정원수도 우아한, 나도 살고 싶은 정도의 탐나는 집이었다. 식기까지 전부 다 진품, 명품(?)...

거실과 방방에 깔린 모노룸장판은 이웃 성당의 레지오 단원들이 가끔씩, 자주 오셔서 세제로 닦고 소독도 해 주신다니 참 그 원장 수녀님의 위생관념과 봉사하시는 분들의 정성에는 감격할 뿐이었다. 집에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귀한 김치냉장고에 가득 찬, 제주 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입 오렌지이며, 참외 등의 과일. 이 모든 것들은 회사품이라 하시던 말씀에 조금씩 뿐이 못하던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집보다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수녀님의 능력에 감탄할 뿐이었다. 그때 원장 수녀님은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

기 계신 분들은 더 대우받으셔야 한다.” 또 말씀하셨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당신 특유의 본성은 안 변한다는 것이었다. 멋쟁이인 할머니는 연세가 드시고 아프더라도 옷매무새며, 의복, 장신구까지도 예쁘고 고운 것으로 치장하신단다. 그리고 신심 깊은 어르신은 병중임에도 ‘주님의 기도’를 줄줄이 바치신다.

이렇게 달랑달랑 쫓아다니는 내가 맘에 드셨을까 ‘베로니카 자매의 일생 중에 요즘은 참 으뜸가는 나날일 것 같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는 ‘마더 테레사회’ 시설이었다. 경인고속도로변의 인천 석남동에서 ‘사랑의 선교수녀회 온정의 집’이라 이름 했었다. 이곳의 특징은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①중환자 ②무일푼 ③무연고자의 사람들만이 입소할 수가 있었다. 알음알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설명으로 비교적 노틀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는 발걸음을 하였다. 완전 다른 두 시설의 환경에 가슴 아프며, 한동안 봉사하다가 나의 등지를 옮기게 되며 자연스럽게 끝내게 되었다. 세월이 오래인 지금, 2014년에 인천서구 오류동 <온정의 집>으로 이전했다한다.

**마더 테레사**(1910.8.26~1997.9.5)는 유고슬라비아의 스코프예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카스트계급사회의 인도 캘커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한 ‘인류의 참 어머니’로 변신하신다.

종교, 이념, 민족, 피부색을 초월한 마더 테레사는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던 가난한 이들 중 가난한 이로 “주님 사랑의 기적”을 일군 일꾼이었다. 그녀에게 가난은 참 기쁨이었고 자유였으며 사랑의 힘이었고 역설적이게도 풍요로움이었다. 그 **가난의 통행증**은 온 세상을 누비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던 방편이었고

비결이었다. 한국에는 3번 다녀가셨다.

1928년 11월 인도에서 선교활동이 중심인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하고 ‘리지외의 데레사’를 수도명으로 정한다. 그 후 상류층 교에서 18년 동안 교편생활을 하였다.

1946년 9월, 피정 차 히말라야 산기슭, 열차. 그녀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 부르심으로 힌두이즘의 종교 전통과 카스트 제도로 전체 인구의 30%가 절대 빈곤층으로 거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빈민들에게 사랑+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단순히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사람,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삶의 희망과 신앙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 성령의 힘 안에서 희망을 갖지 못한 모든 이를 칭한다.

20C의 성녀라 일컬어지는 「마더 테레사」가 1948년 4월 교황청의 뜻에 따라 창립한 **사랑의 선교 수녀회** 영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마지막 말씀 「**목마르다**」에 근원을 두고 있다. “며칠 전 제가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꿈을 꿴습니다. 그러나 성 베드로께서는 ‘지상으로 돌아가거라. 이곳에는 빈민굴이 없느니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1996년 연설)

그녀가 평상시 모든 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원천은 사랑의 기적을 이룬 가난이었다. 마더 테레사는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던 가난한 이들 중 가난한 이였다.

**십자가의 성 요한**(1542~1591)의 부친 곤잘로 예페스는 성직자, 거상을 지낸 본래 스페인의 중심지인 톨레도 상류계급의 반듯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어머니는 **개종한 유대인 혈통**이었기에 당시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던 시절이었다. 어

린 요한은 홀로 되어 가난한 가장이 되신 어머니 카타리나를 도와 자선 병원인 메디나병원에 취업한다. 말이 취업이지 엄청 가난한 병원이기에 어린 요한은 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환자를 먹여 살리고 피고름을 닦는 간병을 7년간 한다.

1563년 21살에 메디나 델 캄포의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한다. 원장님의 호의로 권위 있는 살라망카대학에서 철학, 신학을 공부하고 25세 되던 1567년 사제가 된다. 사제서품을 받은 후에 운명적으로 만난 이는 바로 **아빌라의 데레사**였다. 요한은 그 당시의 가르멜보다 좀 더 엄격한 영성생활을 하고 싶어 카르투스안회로 옮기고자 한다. 이에 아빌라의 데레사는 함께 개혁해서 원래의 순수함을 회복하자며 설득한다. 우여곡절 끝에 십자가의 요한과 아빌라의 데레사 두 분은 함께 가르멜을 평정하시니 **가르멜의 사부·사모로 칭송을 받으신다.**

**가르멜의 산길, 어둔 밤, 영혼의 노래, 사랑의 산 불꽃** 등 주옥같은 글과 시들은 요한과 함께, 개혁을 반대하는 같은 수도회 수사들로부터 핍박과 모진 고난을 받으며 세상의 빛으로 잉태된다. 요한은 스페인 역사에서 절정이던 시기, 자신의 심오한 영성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으신다.

요한의 어린 시절 일화 하나. 흙탕 연못에 빠진 그를 어느 귀부인이 구하시고자 손을 내밀자 그 손을 더럽힐 것이 미안하여 못 잡고, 한 남성의 지팡이를 잡고 빠져 나온다. 이 분들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일화 둘.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 위에 어린 요한이 구름처럼 떠있었다. 성모님께서 우물 아래에서 요한을 받아 받치고 계셨다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16C, 마더 데레사는 20C에 출생, 시대적으로도 다른 환경

에서 사셨기에 비교는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소외된 인간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폭은 팽팽하게 마주한다. 위의 두 분 성인께서는 삶의 결은 다르나 빈자의 안식처였고 위로가 되셨다.

**마태 11.28~30**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마르 12.38-44** ; **루카 21.1-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태 19:21**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모시므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 물질, 시간, 건강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비읍니다. **아멘!!!**



## 마음의 샘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별을 따다 줄 수 있을 만큼 뜨거웠던 열정의 시절입니다. 보석을 구하려고 굶주리며 밤낮으로 일을 한 것은 보석만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정에 스스로 감동하며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련된 보석은 물론 허약해진 나의 건강을 그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열정도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드러나곤 했는데, 결국 어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마치 풀과 고기를 서로에게 선물한 황소와 사자 부부의 우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너를 위한다.” 는 말로서 나와 상대를 속였던 날들이었습니다. 이타적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 것처럼, 방법으로 동원된 모든 것들은 “너” 가 없이 존재하는 내 욕망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같은 방식의 삶의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사랑을 추구하는 삶은 고단한 여정으로 다가옵니다.

서로 다른 욕구와 방법들을 소유한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과연 이들과 사이좋게 맞춰가고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고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나와 상대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더 나아가 개인적이고 공동의 욕구를 위해 연대 가능한 적절한 수단을 찾아가는 지혜가 그리워지는 날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는 어떤 방식으로 당신과 함께 머물러야 할까? 오늘처럼 지새우는 깊은 밤이 오면 어느새 당신은 내게 맞는 방식으로 함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습니다. 겨울 밤, 춤추던 사색과 감정을 잠재우는 고요한 이 밤의 방식을 배워갑니다. 나의 능력과 욕구마저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 밤의 여정을 당신 현존의 증거로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갈망 (...), 그 갈망이 비록 하느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일지라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갈망이 하느님께로부터 올 때, 그것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빛과 중용과 분별을 준다는 것입니다.” (완덕 19,11-13)

\* 회원의 글 \*

## 행복한 사랑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로 잠깐 멈춘 바쁜 하루. 충무로 신세계 백화점 앞 중앙광장 분수대의 네온으로 장식된 성탄 축하트리 앞에 서니 이곳을 처음 찾았던 내 어릴 적 일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나는 9살에 아우를 보았다. 어스름 저녁 11월에 산과도 뛰어가서 불러왔다. 내가 아가의 기저귀도 빨아주고 쪼그만 나이에 동생을 업어 키웠으니 참 기뻐다. 그 동생이 몇 달쯤 되었을 때인지 아마도 이가 나려고 잇몸이 근질거리 아무거나 입에 넣고 깨물 때였다. 당시는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 근처 창성동 기와집에서 고만고만한 무지개 빛 7남매가 살던 시절이었다. 말린 문어다리가 부드럽고 쫄깃하니 아가들이 젖니 나올 때 빨기에 좋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땡땡땡' 전차를 타고 남대문시장 근처, 중앙 우체국이 있는 동화백화점까지 왔다. 지금의 신세계백화점이었다. 말씀대로 마른 문어다리를 파는 노점상이 있어 반갑게 사가지고 언니와 손잡고 돌아왔다. 요게 어린 나의 동구 밖 첫 외출이었다.

셋째 딸로 막내지만 집안일을 무척이나 잘 도와서 살림밀천이라고 예뻐라 하시던 우리 할머니. 여름이면 장독대 앞마당 작은 꽃밭에 핀 채송화, 봉선화, 분꽃, 활련화, 양아욱, 맨드라미, 사르비아 깨꽃, 다알리아, 백일홍, 금잔화, 붉고 화려하게 멋진 칸나 꽃에 물 주고 잡초 뽑고 가꾸는 일은 내 몫이었다. 요즈음 보기 어려운, 추위에 비교적 강한 우리나라 토종 꽃님들이었다. 바지런한 나는 하얗게 고무신을 닦아서 해 바른 댕돌 위에 가지런히 세워

말리고, 펴프질해서 길은 물은 부엌으로 날라서 설거지도 하고 또 마늘을 까서 칼자루 뒷등으로 짓찧어서 다지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파아란 하늘에는 꽃구름이 떠있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가을이면 국화꽃 향기 뒤로하고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찾아 나선다. 진명여고와 국민대학 앞을 지나 '땡땡땡' 전차 길을 건너 迎秋門(경복궁 서문)을 지나면 은행나무 가로수 돌담길을 따라 걷게 된다. 칠궁도 있었다. 칠궁은 역대 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의 생모인 일곱 후궁의 신위를 모신 곳인데 보통의 가정집만큼 추레하니 출입이 금지된 기와집이었다. 칠궁을 지나서 언덕바지를 오르면 神武文(경복궁 북문)과 마주보며 경무대 정문이 보인다. 그 길에서 햇살 부서지는 은행잎을 줍다보면 이승만 대통령 내외분이 산책하시는 모습도 아주 가까이에서 가끔은 볼 수 있었다.

이렇듯 평화로운 일상은 우리 집안이 4년여의 피난살이 끝에 어렵사리 얻은 사랑의 행복이었다.

내 어머니는 홀로 어린 6남매를 데리고 당시 법조인이셨던 아버지가 어찌어찌 제주도 모슬포로 피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 내려가셨다. 그곳에서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겪었다고 하신다. 당시의 제주도는 화장실에 돼지가 있었고 인분으로 키웠다. 그 똥돼지(쓰기는 똥돼지라 쓰고 읽기는 흑돼지라 한다)가 꿀꿀거리며 달려들어서 난감했다고 언니들은 회상한다. 돼지는 인분이 변질되기 전 바로바로 섭취하기에 인분에 포함된 미생물과 유산균 등이

돼지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단다. 또 하나는 어린 내가 뒷마루에 앉아 있을 때 작은 뱀이 살그머니 달려들었는데 마침 작은 오빠가 고무신을 벗어 들고 때려잡아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면했다고 한다.

그담으로 대구 칠성동으로 옮겨가서 7살까지 살았다. 동네 굴다리 아래 길은 새까만 석탄가루로 질척거렸고 유난히 개천과 도랑이 많았다. 그 마을 동무들을 따라서 돌돌거리며 어느 마당 너른 집을 구경 갔었다. 꽤나 많은 누에가 뽕잎을 뜯어먹고 한쪽에서는 베틀도 있고 또 물레질로 시골 시골, 왁자왁자 했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씨줄날줄 엮는 비단 집이었나 보다. 또 이사 다니던 집 중에서는 귀신이 나오던 집도 있었다. 여러 가구가 살았는데 새벽에 엄마가 문틈으로 하이얀 옷에 긴 머리를 풀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를 몇 번이나 보셨단다. 그 집에 살 때는 머리 푼 귀신을 생각하다가 화장실에 발이 빠지기도 했다. 가난을 밥 먹듯 하는 그때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만 엄마가 떡을 사다가 먹여주셨다.

고단한 피난살이 몇 년 후, 막내인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되니 이참에 할머니와 오빠 둘이 기다리고 계시니 돌아가야 한다며 서둘러 서울행 기차를 탔다. 아마도 몹시도 추운 겨울, 풀무질해서 조개탄을 사용하고 낫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아랫목에서 담요 덮고 고구마도 가래떡도 구워 먹고 사랑으로 평화로운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경상도 사투리의 꼬마 아가씨로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무난히 학교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었다. 졸업 즈음 지금도 잊히지 않는 사건이 터졌다.

그때 무슨 시험을 치르던 때였다. 시험이 거의 끝나가던 시간에 갑자기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따따따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처음으로 듣는 소린데 고개 총성이란다. 처음에는 실감도 안 나고 무

섭지도 않았다. 그 소리에 선생님들이 왔다갔다 우왕좌왕하시더니 집으로 돌아가라 신다. 몇 명씩 줄을 세워서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큰길을 지나 어느 정도는 데려다 주시고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 당부하셨다. 콩 볶는 총소리는 한참을 더 들렸다. 그 일이 4.19혁명이었다. 며칠 후 조용해진 틈에 살며시 전차 길로 나가 보니 핏자국이 여기저기 참 많이도 자리했다. 이때에야 몸서리가 쳐졌다. 무섭고 어수선한 날들이었지만 말아 놓고 귀지를 파드리던 할머니가 계셨고 지혜로운 부모님 밑에 또 형제들과 함께 했기에 힘들었던 기억도 이렇게 그리움으로 남는 모양이다.

뒤돌아보니 생각이 모자라 지나친 일들로 아쉬움이 크다. 가난하고 축던 피난살이에서 “발을 헧디뎠서 빠졌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다독이며 떡을 사다 먹이시던 따뜻하고 강인한 내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었다.

예쁘게 물든 낙엽을 찾아다니던 소녀 시절에는 엄마나무의 슬픔을. 추운 겨울을 넘기려 어렵사리 제 새끼인 이파리를 털어 던지는 빈 가슴의 지체를. 엄마에게서 버림받고 떨어져 짓밟히는 아가의 부서진 마음도 생각 못했다. 그럼에도 내가 가꾸던 꽃밭의 베어진 풀도 아픔 속에서도 향기를 퍼뜨린다. 희생이고 사랑이었다. 이렇게 모든 상처를 알록달록 기쁨으로 포장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나눔의 영성.

예수님은 마태오 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참 행복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선물할 때 얻는 것이라고 밝혀 말씀하신다,

오늘 달력의 마지막 장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본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 회원의 글 \*

## 가르멜 재속회에 봉헌된 종신서약문

권금미(예수 부활의 데레사)/ 서울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정신으로 살고자하는 저는 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인 사랑의 정신으로 살고자 합니다.

평화와 하느님을 꾸준히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영혼의 맑고 깨끗함과 덕의 출중해짐을 위하여 갈고 닦을 것을 서약합니다.

영혼들의 거룩한 여왕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님의 크신 힘으로 저를 가르멜의 딸로 이끌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성모님께 의탁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서울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참사회와 협조신부님께 종신서약을 허락해주시기를 겸손되이 청합니다.”(2020년 7월 15일 수)

이것이 저의 종신서약문입니다. 참사회 면담 때에 어느 참사님이 “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인 사랑의 정신으로 살고자 합니다. 평화와 하느님을 꾸준히 기억하고 두려워함과 영혼의 맑고 깨끗함과 덕의 출중함을 위하여 갈고 닦을 것을 서약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실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앞이 아득했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 저런 크나큰 약속을 겁도 없이 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순간 저도 모르게 “예 그렇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대답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대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침마다 이 서약문을 한 번씩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약속을 나는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렇듯 인간은 어쩌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사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을 보면,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너무나 추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저를 봅니다. 저 자신의 추악한 모습 때문에 몸서리가 쳐질 때도 있지만 저의 추악한 모습을 말해주는 이웃(특히 남편이나 자식, 친한 친구)이 있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어떤 때는 그 이웃을 미워하기까지 하면서 삽니다.

가르멜 여정의 가장 거룩한 부분은 자신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의 사모이신 대 데레사 성녀께서도 완덕의 길 15장에서 억울하게 꾸지람을 당할 때는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크게 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낮게 보이기를 정말 원하고 억울한 학대와 죄 받기를 큰일에 있어서도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15장 4절에는 “의인도 하루에 일곱 번씩 떨어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은 것이야 항상 죄 투성으로 살고 있어서 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탓하는 일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을지언정 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조금도 죄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종신서약 전에 15년 동안 간헐적으로 있었던 부정맥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 가서 관상동맥 안에 영구 심장 박동기를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술대 위에 올라가던 7월 24일 금요일 아침 10시에 협조 사제님과 재속 회원님들의 사랑의 기도를 얼마나 깊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깊고 신비한 사

랑의 체험을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 그러나 강렬하게 느껴지는 사랑, 그 체험은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심장 정지시간이 4분만 지났다면 온몸이 괴사되어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영혼입니다. 아마도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7월 15일에 종신 서약문을 쓰고 7월 21일에 실려 갔으니 아마도 종신서약문을 쓰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면서 봉헌된 종신서약문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썼지만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가르멜의 많은 신부님들이 월모임 강의 때마다 안내해주셨던 가르멜의 여정을 이제야 한걸음 떼어놓는 마음입니다.

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의 모든 한계를 지닌,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과 대면할 용기가 없다면, 또 다른 이들의 한계를 지닌 그대로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면, 저는 제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느님 안에서 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과 일대 교전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백수여서 둘이 함께 육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게 돌도 되지 않은 둘째 손주를 어린이 집에서 찾아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보니 제게는 2시간만 보낸다는 어린이집에 사실은 6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부모가 24개월까지는 키워야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고, 아들은 그러면 어머니가 키워주시지 그러느냐고 언성

을 높이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는 말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 제게 대드는 아들을 보며 한없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렇지만 순간 ‘아들의 악담은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명만을 생각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까? 이런 실천을 하라고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진 아범. 네가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엄마가 잘 알고 있는데 네게 큰 대못을 쳐서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네 선택에 대해 감히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우진 엄마가 아픈지도 몰랐구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것도 많이 미안하구나. 그동안 엄마가 섭섭한 얘기 한 것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렴. 네 귀한 인생을 쓸데없는 잔소리에 허비하지 말려무나.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하는 사람인데 입에서는 못된 말이 나오는구나.”

이 글을 읽고 아들이 사과를 하러 왔고, 우리 모자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그분의 말씀이 각인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가르멜 재속회에 봉헌된 종신서약문을 통해서 사랑의 깊은 체험을 했고, 평신도들의 소명 교회 헌장 34항에 명시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도유된 사람들로써 성찬례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봉헌되는, 봉헌된 삶을 한 발짝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멘!!\*

2021년 4월 구역모임

##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재속 가르멜회

### \* 범위: 제22장 해설: 기도란 무엇인가?

본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다. “정신 기도(oración mental)가 무엇인가를 들어서 밝힘.”

이 제목의 뒤를 잇는 8개의 항목들은 『자서전』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데레사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 준다. 인격적인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바로 그분과 함께... 우정의 나눔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사귄으로서, 인간 편에서 보면 그분과 사귄 수 있도록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느님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는 신비스러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돈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데레사는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체험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1)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살아감, 2) 당시의 시대와 환경을 둘러싼 싸움에서 받은 고통.

첫 번째 체험은 특히 22장 내내 성녀의 독백과 외침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2b, 6, 8절). 이는 성녀의 기도이기도 하다.

두 번째 체험에서 성녀는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를 반대하는 이들을 주시했다. 그들은 성녀가 제시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확신했거나 그런 기도 방식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신학자들”을 말한다.

#### 1. 수업의 분위기와 정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들어서 밝히고 또 이를 규정하려면 약간의 이론적

인 면을 제시해야한다.

그러나 성녀는 이론에 대해서는 간단히 다루고 곧바로 실천적인 면으로 넘어갔다. 성녀의 관심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었다.

이제 여기서 데레사는 자신이 자기 스스로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어서 성녀는 독자 수녀들뿐 아니라 성녀의 으뜸가는 독자이신 하느님을 향해 대화를 이어 갔다. 이 과정에서 성녀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수녀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했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반대하던 의견으로 돌아와 반식자 신학자들을 꾸짖었다.

세 부분으로 나뉘는 대화 리듬-독자 수녀들과, 하느님과 그리고 수녀원 밖의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은 데레사의 영혼 상태를 잘 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리듬을 『완덕의 길』 전체를 통해 수없이 보게 된다.

본 장에서 데레사는 감정이 고무되어 있었다. 하느님 앞에서 젖어 든 감동, 독자 수녀들과 나누는 내밀함과 애정, ‘기도’라는 주제에 직면해서 잠시 대화를 멈춘 것, 반식자들 앞에서 느낀 분노와 경악 등이 그러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성녀와 함께 다양한 교육적인 단계를 지나갔다는 점이다. 즉 기도란 하느님과 의 교제라고 하는 데레사의 확신, 잘못된 가르침에 직면해서 제대로 중심을 잡는 것, 특히 직접적으로 체험한 다양한 기도 순간들에 대한 설명 등이 그러하다.

데레사는 본 장 내내 이론이나 어떤 정의보다 기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 직접 배웠다고 고백했다.

## 2.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성녀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정의했다.  
 “나는 정신 기도란 자기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8, 5).

기도의 바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요소는 “누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라는 의식을 기도하는 당사자가 갖는 것이다. 즉 “누구와 함께 말하고 있으며 말하는 분은 누구인가” (3절)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녀는 이 점을 22장에서 반복해서 언급했다. 성녀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말보다 내가 하느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깨치고 보는 것” (1절)이라 가르쳤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 자체의 내용보다 “하느님-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발전되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토록 위대하신 주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잘 보게 될 것” (1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녀는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말하려는지 또는 누구와 함께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으십시오” (7절) 하고 힘주어 말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 그분의 현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비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estar con El)”이다. 성녀는 이를 “내가 하느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는 것”, 즉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며”,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순결하심을 알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기도하는 당사자는 신적 타자(神的他者)를 의식하는 가운데 그분 현존의

후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벗과 벗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이다. 즉 “당신의 지위를 우리의 지위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자 8, 5-6)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겨야 한다.

## 3. 근본적인 음악

성녀는 이 책의 중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미지를 활용했다.

- ‘사회적인 교제’의 이미지,
- ‘길’의 이미지,
- ‘혼인적인 사랑’의 이미지.

이들 가운데 22장 전체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이다. 즉 기도는 하느님과 더불어 나누는 **우정의 교제**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정은 두 인격 간에 전개되는 ‘사랑의 교제’를 의미한다.

**길**(camino)라는 이미지는 이보다 훨씬 단순하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 또는 “그분 곁에 있는 것”은 목적지에 이르는 지름길이다(3절).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인적 사랑**(amor sponsal)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미지를 보게 된다. “세례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약혼을 했다. 그리고 그분과의 궁극적인 합일이라는 결혼을 열망한다. 기도란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을 위한 것이다. “결혼”을 고대하며 이미 “약혼한 이들”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지향의 첫 번째 대은 하느님이다. 즉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며 나의 상황이 그분의 상황과 같아지게 되기를 바라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나의 따님들이여, 이 진리들을 깨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 기도입니다” (8절).

\* 추모글 \*

## \*화양연화(花樣年華)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한밤에 묵직하게 들리는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착각이려니 읽고 있던 책에 눈길을 돌리지만, 무언가 세차게 휩쓸리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네가 나가 살펴보아라.” 글을 읽던 노옹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동자에게 이르던 \*\*「추성부」의 소리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일까. 언뜻 무섭증이 일지만, 곁에 동자가 없으니 외등을 켜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세찬 비바람이 들이칩니다. 삼시간에 거실 바닥은 빗물이 흥건하고 번갯불이 어둠을 가르고 천둥이 웁니다. 비설거지는커녕 간신히 문을 닫고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가 잦아들길 기다립니다. 좀처럼 그칠 기미가 없는 거센 폭풍우 소리, 밤은 깊어가고 뇌성 번개가 멈춘 것 같아 재빨리 마당으로 뛰쳐나가 태양광 정원등에 비닐봉지를 씌우노라니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일 년 중 손꼽을 정도로 비 구경이 어려운 나성에 뇌성벽력을 동반한 겨울비가 연일 내립니다. 세상사 속진을 다 씻어 새로운 날을 마중하는 날이런가. 우박이 쏟아지고 무지개가 뜨는 신비로운 날 생각지 못한 작별을 마주합니다.

성탄의 한밤에 먼 길 떠난 수산나님과 본향 가는 길에 동행하시려는지 한낮에는 같은 구역 말지나 단독회원님의 부음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머물라는 행정명령에 조문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비탄에 잠긴 우리 회원들은 이틀을 줌(Zoom) 화상 미팅을 통하여 돌아가신 영혼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천명인 모정을 아낌없이 주고 가신 두 분 중 한 분은 한국에서 오신 단독회원하시기

에 모르는 회원들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해 참사진과 단독회원님들 방문 중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뵈었던 인자하신 어머니였습니다. 96세의 연세에도 성무일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셨다고 가족들과 친교를 나눴던 회원들이 회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기도 우체국)에 기도를 청하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두 분의 아름다운 영혼을 주님 전에 봉헌 드렸습니다.



바로 전날 인사를 주고받았던 윤수옥 사랑의 수산나 들꽃님. 성탄 대축일 늦은 밤 관구에서 올려주신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영상물>을 시청하고도 왠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뜻 선잠에서 깨어 처음 접한 부음. 그대의 선종 소식은 마치 꿈을 꾸듯 무척 긴 하루 이틀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회원들의 추모 영상과 글, 오카리나 추모 연주, 기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신 신부님 수사님들, 저마다의 마음에 남겨준 사랑이 슬픔의 강이 되어 끝없이 흘러갑니다. 늘 상냥한 미소와 다정한

몸짓으로 순전한 기쁨을 나눠주던 그대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말없이 조용 조용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던 들꽃님, 주위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현의처럼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고 간 하느님의 어여쁜 따님이셨습니다. 아기를 보면 좋아서 절로 입이 올라간다면 이야기처럼 얼마 전부터 산모를 돌보아주려 다닌다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려운 시절이기에 가족들만 고별식을 치르겠다던 예정과 달리 신부님과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도록 장의사 측과 조절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내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허리 통증으로 요즘엔 사용하지 않던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반닫이를 뒤적이다 우연히 눈에 띈 예식용 장갑을 전례에 필요하려나 싶어 가방에 넣고 고통의 신비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며 낯선 길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난 어느 자매님의 인사에 누구신지? 가르멜 회원은 아니지만 수산나를 통해 알고 있었다며, 신자들의 기도를 말았지만 떨어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지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모님의 성의를 입고 예순한 살의 망자가 되어 말없이 누워있는 고별의 장소엔 은발의 장부님과 가족들의 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병 전문의인 아드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관 이편에서 유리 스크린에 손을 대고 고개 숙인 망극함이 절절한 뒷모습. 혹여 코로나 사태로 응급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런 비통한 일이 생겼을까? 석연치 않은 의문을 도리질하며 차오르는 슬픔을 다독였습니다. 사랑을 남김없이 몽땅 쏟았기에 마지막 심장의 고통을 멈추고 귀향길에 오른 하늘 아버지 마련하신 시간임을 스스로 위로하면서요.

첫눈에 작은 꽃님 아니냐고 마스크까지

쓴 저를 알아본 낯선 분은 가깝게 지내던 본당의 지인이시랍니다. 선배들에게 ‘언니’라 부르던 들꽃님은 저에겐 늘 ‘작은 꽃님~’ 그렇게 부르셨죠. 어쩌면 예비하신 섭리였는지, 유가족과 그분의 청으로 고별예식 사진을 찍고 들꽃님의 마지막 모습을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뒤로 눕혀진 화관을 조심스럽게 앞머리에 씌운 후 손잡아 마지막 고별인사를 했던 한 해의 끝자락을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너를’ 목이 메 부를 수 없었던 이별가, 코로나 안전 수칙 준수로 야외 파킹장에서 함께 하던 회원들의 정성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가르멜의 한 가족임을 깨닫습니다. 고별예식이 끝난 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서성이던 회원들, 차 안에서 누군가의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영광의 신비를 바치며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눈물이 그렇그렇 목이 아파오지만, 사랑스러운 발자취에 차오르던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정화됩니다. 이젠 천상의 가족들 특히 가르멜의 성인성녀와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리라고.

지난가을, “엄마, 선물 왔어!” 막둥이가 전해 준 박스엔 초승달과 삼색의 잠자리 태양열 정원등이랑 외손자 루카스의 영양제가 들어있었지요. ‘참 예쁜 하루네요.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기들 비타민 사는 편에 루카스 생각이 나서요. 옆에 계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던 뜻밖의 선물. 회보에 실린 글 중, 에디트 슈타인이 태어나신 속죄의 날과 저의 생일 이야기를 허투루 여기지 않고, 생일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잠자리와 놀고 있어요. 기쁨이 파문되어 퍼져 나가는 환희예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제 생일은 음력이에요~ 웃음꽃을 피우던 날이 선연합니다. ‘오늘 음력 0월 00일이네요.’ 잊지 않고 거듭 축하의 인사를 전해 주던 그 날은 마침 추수감사절이었지요. 둥굴레 뿌

리와 꽃씨 몇 가지 곁들여 보낸 성탄 선물을 받고 잘 키우겠다며 기뻐하시더니 지금은 천상에서 정원지기이신님과 꽃을 가꾸며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비는 그치고 맑고 따스한 겨울 별이 마치 봄날 같은 청명한 새해를 맞았어요. 세찬 비바람에 잎사귀를 떨군 빈 가지마다 꽃망울이 빗방울처럼 맺혔습니다. 아기처럼 순한 청매 한 송이가 옆 가지엔 마치 삼위일체인 양 세 송이가 피어 있어요. 꽃을 좋아하던 들꽃님 “새해 첫 손님, 청매가 폈어요!” 티 없이 맑은 창공으로 꽃소식을 전합니다. 때마침 답신처럼 핸드폰이 땡~ 울리네요. 세상도 사람도 다 꿈꿨다는 지리산 자락에서 보내온 ‘...여여하시기를...’ 들꽃님처럼 꽃을 좋아하는 시인의 새해 인사입니다. 여여(如如), 가만 떠올리기만 해도 찾아오는 고요 그 안에 담긴 변함없음에 수선스러운 저의 마음을 잠재웁니다.

밤마다 어둠 속에서 포근한 달빛 등이 잠자리 스무 마리와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사람마다 간직한 아픈 한 자락씩, 그 아픔을 눈물로 나누던 어느 해 연피정에서 한방을 쓰던 인연이 때때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깜깜한 밤에도 온전한 봉헌으로 그대의 일생은 순간순간이 꽃으로 피어나는 화양연화(花樣年華)였음을 두고 간 마음자리마다 아름답고도 빛나는 사랑이란 꽃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엄동의 시린

날이 가고 봄날이 찾아오듯 허방을 던던 애도의 시간을 지나 다시 마주 볼 부활의 그 날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언제나 함께할 거니까요. 그대의 사랑이 빛나는 작은 꽃밭에 ‘영원한 사랑’이란 꽃말을 지닌 도라지 꽃씨를 뿌렸어요. 사랑하는 윤수옥 사랑의 수산나들꽃님! 하늘 정원에서 사랑하는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길이 평안하소서.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삶이 꽃이 되는 순간

\*\* 추성부: 중국 송나라 문인 구양수가 가을바람 소리를 지은 장문의 서정시



## 가르멜영성문화센터

### 영성강좌

#### \* 2021-22 가르멜영성코스 II 온라인 수강생 모집요강 안내

9명의 교수진, 16과목, 과목별 16시간 수업

2021년코스 접수기간: 2021년 2월 2일 - 마감시까지

(수강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carmelcenter.kr](http://carmelcenter.kr))

교 과 목							
과정 I	기초영성	신약성경 영성, 영성사(교부시대 영성, 중세시대 영성, 근대-현대 영성), 평신도 영성, 영성생활과 심리					
과정 II	예수의 데레사	서간집과 소품집, 그리스도 체험, 기도영성, 선택1(생애)					
과정 III	십자가의 성 요한	소품집과 시, 그리스도 체험, 영성과 인간이해, 화해와 기억의 정화, 선택1(생애)					
과정 IV	가르멜의 성인들	에디트슈타인과 여성 마리아, 엘리사벳의 그리스도 체험, 소화데레사 영성의 근본 주제들					
수 업 일 정							
년도	월	과 목	교수 명	요일	수업시작일		
2021년	1학기	3월	신약성경 영성	이혜정 수녀	화	3월 2일	
		4월	교부시대 영성	최원오 교수	금	4월 2일	
		5월~6월	1-2교시 중세시대 영성	전영준 신부	화	5월 11일	
			3-4교시 평신도 영성	최우혁 교수	화	5월 11일	
	7월,8월 방학						
	2학기	9월~10월	1-2교시 근대-현대 영성	윤주현 신부	화	8월 31일	
			3-4교시 에디트 슈타인과 여성 마리아	최우혁 교수	화	8월 31일	
		11월~12월	오전 선택: 예수의 데레사의 생애	박정오 신부	화	11월 2일	
			1-2교시 예수의 데레사의 서간집과 소품집	윤주현 신부	화	11월 2일	
			3-4교시 예수의 데레사의 그리스도 체험	김광서 신부	화	11월 2일	
1월,2월 방학							
2022년	3학기	3월~4월	1-2교시 예수의 데레사의 기도영성	박정오 신부	화	3월 1일	
			3-4교시 소화데레사 영성의 근본 주제들	정인숙 교수	화	3월 1일	
		5월	오전 선택: 십자가 요한의 생애	김광서 신부	화	5월 10일	
			십자가 요한의 소품집과 시	이인섭 신부	화	5월 10일	
	6월	영성생활과 심리	김인호 신부	화	6월 7일		
	7월,8월 방학						
	4학기	9월~10월	1-2교시 십자가 요한의 그리스도 체험	김광서 신부	화	9월 6일	
			3-4교시 엘리사벳의 그리스도 체험	윤주현 신부	화	9월 6일	
		11월~12월	1-2교시 십자가 요한의 영성과 인간이해	윤주현 신부	화	11월 1일	
			3-4교시 십자가 요한의 화해와 기억의 정화	이인섭 신부	화	11월 1일	

\* 매주 현장 수강 수업일 기준 7일 후 문자나 이메일 전송

전송일 기준 7일 후 영상이 삭제됩니다.

\* 동영상 강의의 무단 도용, 공유 및 배포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문의: 홈페이지 [carmelcenter.kr](http://carmelcenter.kr) 접속/ 센터사무실 010) 4149-1853, 02) 6951-1101

## 피정 및 미사

\* **첫토요 성모 신심미사**: 매월 첫째주 (토) 10:30

\* **성시간**: 3월 27일 (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3:30 ~ 16:30

주례: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영성강좌, 성체조배, 미사

주제: 숨은 영성과 요셉 성인

※2021년 상반기 성시간

연도	날짜	지도	날짜	지도
20	2월 27일	이범규 세례자 요한 신부	5월 29일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0	3월 27일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6월 26일	황태현 디다코 신부
2	4월 24일	전주원 하상 바오로 신부	7월 31일	조성훈 다미아노 신부
1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년 피정**: 3월 13일 (토) 14:00 ~ 16:00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청년피정 신청/이름/세례명/연락처)

## 재속회 소식

###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채청자 성모성심의 크리스티나
  - . 선종일: 2020년 12월 26일 (향년 97세)
  - . 서울 성 요셉 공동체
- \* 윤수옥 사랑의 수산나
  - . 선종일: 2020년 12월 26일 (향년 61세)
  - .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최정식 예수성심의 말지나
  - . 선종일: 2020년 12월 26일 (향년 97세)
  - .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허린 예수성심의 알로이시오
  - . 선종일: 2021년 12 14일 (향년 84세)
  - . 인천 성 요셉 공동체

## 수도회 소식

### 서원 갱신

1월 8일, 광주 가르멜 수도원에서 최동현 예수 성심의 마리 프란치스코 수사님의 서원 갱신이 있었습니다. 마리 프란치스코 수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수사님께서 수도생활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편지 \*

+ 찬미 예수 마리아 요셉

코로나19와 긴 장마 등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2020년도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과 고민이 많으시죠?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고통과 불안으로 시달리게 하는 요즈음,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으며 아무도 가지않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의 시기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하느님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가르멜의 삶을 나누고 싶어 편지 드립니다.

저희 충주 예수 성심 가르멜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기도의 길, 기쁨의 길, 형제애의 길, 시대의 길**을 가르멜의 산길로 걷고 싶은 성소자들을 안내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오늘날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Solo Dios Basta!)” 하신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말씀처럼, 코로나의 위기가 참된 진리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귀하디 귀한** 보물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성령의 은총과 지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많이 감사드리며 2021년에도 아기예수님의 은총과 축복 가득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전화: 043-852-2800, 010-3123-2809/ e-mail: ocdchju7833@daum.net

주소: 충주시 대소원면 쇠실로 1141(27466) 충주 예수성심 가르멜

※가르멜 여자 수도원 주소

고성: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로 236(52952)/ 055-674-0588/ kscarmel@hanmail.net

대구: 대구시 남구 안지랑로16길 30(대명동)(42486)/ 053-622-4408/ carmeldg@hanmail.net

대전: 대전시 동구 한밭대로 1283번길 27(용전동)(34539)/ 042-672-3351/ djcarmel@hanmail.net

밀양: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3길 18-128(50409)/ 055-353-6597/ pscarmel@hanmail.net

상주: 경북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37148)/ 054-531-0507/ ocdsjcarmel@hanmail.net

서울: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55길 67(수유동)(01024)/ 02-902-1489/ seoulcarmel@hanmail.net

의정부: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로 26번길 177-7(안흥동)(11304)/ 010-5780-9070/ ujbcamel@hanmail.net

천진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03-1(12716)/ 031-762-5951/ trinityood@hanmail.net

캄보디아: Carmelite Sisters P.O.Box 2544 Phnompenh Cambodia/ 001-855-1781-2317/

pnpcarmel@hanmail.net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